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최 명 현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 요인

지도 장 순 복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최 명 현

최명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장 순 복 인

심사위원 김 주 형 인

심사위원 강 희 선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년 12월 일

감사의 글

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제발 끝나기만 해라’며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에 부담과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논문이 나오기까지 부족한 저에게 지지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 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에 작아져만 가는 저에게 믿음과 칭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진정으로 열심히 노력했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논문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까지 깨닫게 해주신 장순복 교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셔서 세심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주형 교수님, 논문 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이메일에 한번도 마다하지 않고 수십 차례 예리하고 꼼꼼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긴장되었던 본심 후 깜짝 파티까지 고려해 주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강희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료수집에서 영문 초록까지 흔쾌히 도움 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뻐해주신 김수 교수님, 자료수집 때문에 애가 탈 때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 주신 유일영 교수님, 부족한 저에게 늘 과분한 칭찬으로 힘을 주신 나윤경 교수님, 위트와 냉철한 한마디로 절 긴장시키면서 간호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해주신 김소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자료 수집을 위해 도움을 주신 권인숙 교수님, 김분한 교수님, 김초강 교수님, 박영숙 교수님, 이명숙 교수님, 이선이 교수님, 유외숙 교수님, 김선경 교수님, 김승은 교수님, 김정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 쓰는 과정을 즐기라’며 멋진 격려와 더불어 자료수집까지 흔쾌히 해주신 조동숙 교수님, 전은미 교수님, 정승은 교수님, 김미종 교수님과 주제선정에서 자료 수집, 논의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이선경 선생님과 논문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 박소미 교수님과 정재원 교수님, 송주은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 주제에 관심 가져주신 김영란 선생님과 힘이 되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혜진 언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정 어린 격려로 감동을 준 손선영 선생님과, 시기적절한 충고와 논문을 쓰기 시작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선형언니, 늦은 밤, 주말까지 학교의 형광등 불을 밝혀주어 의지가 되었던 현례 언니, 교실원으로 논문을 함께 진행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눈 민옥, 늘 변함없는 우정에 고마운 원숙과 김예진 선생님, 심정언 선생님을 비롯한 모성전공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원 공부하는 후배를 위해 진지한 충고와 귀한 휴가를 양보해 주셨던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들과 논문이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류지인 선생님과 경희언니, 현정언니, 수현언니, 해영언니, 은현언니, 세원언니를 비롯한 간호대학 모든 조교 선생님들과 한참 아래 후배를 좋게 봐주시고, 격려해주신 권인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함께 나누며 일상의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든든한 시바, 논문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주고 즐거움을 준 강지와 따거, 귀한 시간 내어 자료 수집을 도와준 너무나 멋진 여성주의자 시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제 안의 틈틈이를 있게 한 초이를 비롯한 오늘, 똑지, 메두사, 마야, 레드, 술래, 운, 샘, 고동, 조제를 비롯한 델타 페미니스트에게 이 기회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씩씩하고 독립적인 딸로 키워주신 멋진 아빠와 제 삶의 role model이 되어주시는 자랑스런 엄마와 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착한 동생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꺼내놓기 어려운 성경험을 긴 설문지에 솔직하게 답해주신 연구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상의 절반은 이루는 여성들에게 이 논문의 결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04년 12월

차 례

표 차례	iii
그림 차례	iii
국문요약	iv
I. 서 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목적	4
C. 용어의 정의	5
D. 연구의 제한점	6
II. 문헌고찰	7
A.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7
B. 성적자기주장 관련 요인	13
III. 연구방법	23
A. 연구설계	23
B. 연구대상	23
C. 연구도구	24
D.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28
E. 자료분석	29

IV. 연구결과	30
A.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	30
B.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36
C.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관련 요인	39
D.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차이	41
E.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과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	46
V. 논 의	52
A. 성경험과 성적자기주장	53
B. 의사소통과 성적자기주장	56
VI. 결론 및 제언	59
A. 결론	59
B. 제언	62
참고문헌	63
부 록	70
Abstract	76

표 차례

<표 1> 측정 도구 신뢰도	27
<표 2> 여대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표 3> 여대생의 이성교제 경험 특성	32
<표 4> 여대생의 성관련 경험 특성	35
<표 5>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37
<표 6> 최초와 최근의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의 차이	38
<표 7>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관련 요인 특성	40
<표 8> 여대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차이	42
<표 9> 여대생의 이성교제 특성에 따른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차이	43
<표 10> 여대생의 성관련 경험 특성에 따른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차이	45
<표 11> 성적자기주장과 제 요인의 상관관계	49
<표 12> 미성경험자의 성적자기주장과 제 요인의 상관관계	50
<표 13> 성경험자의 성적자기주장과 제 요인의 상관관계	51

그림 차례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22
---------------------------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정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관련 경험 특성,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우울, 불안, 적대감), 의사소통 유형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2004년 12월 14일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525명을 편의 추출하여, 강의시간 전이나 후에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과 이성교제 경험 특성, 성관련 경험 특성에 대한 질문과 Patricia 등 (1997)이 개발한 성적자기주장측정 도구 (SAS)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Rosenberg, 1965), 정신건강 도구 SCL-90-R (Derogatis. 등, 1974)의 문항 중 우울, 불안, 적대감 문항, 의사소통 유형(이상순, 1998)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ANOVA,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28.1%가 성교경험이 있었으며 첫 성교 평균 나이는 20.39세였다. 첫 성교 대상자는 이성친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성교 시 피임을 항상하는 경우는 47.9%이고, 피임방법으로는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2.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정도는 최초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의 평균은 49.36 ± 8.18 점으로 세부요인인 거절요인의 평균은 24.61 ± 4.30 점, 예방요인의 평균은 24.81 ± 5.07 점 이었다. 최근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의 평균은 49.51 ± 7.88 점이고 거절요인의 평균은 24.40 ± 4.34 점, 예방요인의 평균은 25.10 ± 4.80 점 이었다.

3. 성적자기주장의 관련요인 인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9.67 ± 3.90 점, 정신건강의 평균은 58.70 ± 17.89 점으로 적대감, 우울, 불안 순이었으며, 일치 의사소통을 역기능 의사소통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였다.
4. 최근 성적자기주장 정도는 이성교제 대상자 수 ($p=.003$), 자위경험 ($p=.014$), 성교 시 피임 사용 정도 ($p=.000$), 피임방법 ($p=.018$), 성병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 정도 ($p=.000$), 성교경험 ($p=.000$)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 최초와 최근의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의 거절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7$).
5. 성교 경험이 없는 여대생의 경우는 최초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의 거절요인에서 산만형 ($r=-.186$), 비난형 ($r=-.105$), 최근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에 서도 산만형 ($r=-.132$), 거절 요인은 역기능 의사소통 ($r=-.157$), 산만형 ($r=-.237$)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5$).
6. 성교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경우 최초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은 불안 ($r=-.227$), 회유형 ($r=-.240$), 거절요인은 불안 ($r=-.271$), 회유형 ($r=-.230$), 최근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은 일치 의사소통 ($r=.172$), 거절요인은 회유형 ($r=-.181$), 일치 의사소통 ($r=.199$)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p<.05$).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성적자기주장은 성교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 최초에 비해 최근의 이성교제 시 거절하는 능력이 떨어졌으며, 의사소통 유형이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므로 여대생을 위한 성교육에는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성교 경험을 고려하여 원치 않는 성접촉에 거절하는 법과 성병과 임신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여대생, 성적자기주장,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의사소통 유형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인간 발달 과정에서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이행기로서, 여대생들은 구체적인 인생계획을 세우고 성숙, 친밀성 및 주체성 발달이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김귀분, 오혜경, 2000), 특히 성적 주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여대생들이 이성교제를 통해 성적 접촉을 경험하고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조절하며 친밀감 획득이라는 발달 과업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치 않은 성적 접촉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주로 정신건강, 성격, 학업과 진로 및 가족간의 문제 등으로 상담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약 70%정도가 이성교제와 얽혀있을 정도로 이성문제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중 성관련 문제에 대하여 고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김계현, 1995; 김금운, 윤가현, 2004; 유외숙, 2004; 이혜숙, 2002). 대학생들의 성 태도나 성 행동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70%이상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데, 이들 중 48%정도가 애무이상의 성적 접촉을 하였으며 (김향숙, 2001; 유선영, 2000) 특히, 성관계 경험은 남학생의 경우 1989년부터 2004년까지 46%~52.2%로 6% 정도 증가한데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 6.7%~22%로 월등히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현숙, 1989; 김주연, 1993; 김향숙 2001; 남명희, 1999; 유외숙, 2004; 이인숙, 1994; 장순복 등 1998; 한경순, 함미영 2000).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년기에 진입한 대학생들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문화에 의해 성 유희적 관점에 치우친 상태로 성적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김정은, 1999; 이영휘 등, 1997; 최명숙, 하나선, 2004). 이는 이성교제 중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접촉을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감각적 욕구만족에만 치중하게 되어 생기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성교제는 남녀 간에 전개되는 상호작용이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동주제이지만, 이성교제를 통한 심리·사회·성적 교류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두드러진 상처를 받게 되며, 이는 건강문제의 초래를 경험할 수 있다.

이성교제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의 주체로서 행동하지 못한다면 성교경험은 그 후 이어지는 원치 않은 임신, 인공유산, 성병 감염 등의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에 따른 미혼모 발생, 학업의 중단 등의 사회적 문제, 그리고 자아존중감 손상, 정정체성 혼돈, 친밀성 획득의 실패로 인한 고립감 등으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2000). 성폭력의 한 유형인 데이트 강간으로 인한 피해의 실태로 이성교제 중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6.3%,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49.6% 이었으며 (유선영, 2000), 성폭력 실태 분석에 따르면 가해자의 6.3~9.1%가 데이트 상대인 것으로 나타나, 이성교제 상황에서 성폭력이 꽤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2, 2003). 여대생의 경우 성문제가 생겼을 때 성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여 성상담을 꺼리며, 성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성문제를 외면하거나 정보 부재로 인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유외숙, 2004) 여대생의 성문제는 남학생에 비하여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여대생의 성 관련 경험은 그들이 누리는 전 생애 동안의 성 건강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Green & Tones, 2000; 장순복, 이선경, 김영란, 2003). 특히, 성장과정 중에 획득된 성적자기주장능력은 이성교제 간의 성 접촉 경험에 영향을 주어 성접촉으로 인한 성병, 원치 않은 임신의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선경, 2000; Vaughn, Rupal & Constance, 2002), 성적자기주장능력이 부족한 여성은 지속적인 피임행위를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더 많이 하였다 (Vaughn et al., 2002). 성적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성건강을 돌보는 자율적인 건강행위인 성적자기주장 (Harlow et al., 1993; WHO, 1995)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능력이며 여

대생들에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성교제 과정 중 성접촉 진행 단계에 따라서 성적자기주장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성교제 경험 후기군은 초기 군에 비하여 낮은 성적자기주장을 보였으며, 여기에는 성접촉 경험과 자아존중감이 관련을 맺고 있었다(이선경, 2000). 즉, 이성교제의 기간, 성접촉 단계,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주요인으로 보여 진다.

또한, 여대생의 정신건강과 성적자기주장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원치 않은 성관계 응낙동기가 높고(유외숙, 2004), 우울 할수록 자기주장 정도가 낮아(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4) 여대생의 정신 건강 상태는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낮을수록, 원치 않은 성교 경험율이 높고(장순복 등, 1998), 지속적 피임 행위군이 비지속적 피임 행위군에 비해 성관련 의사소통을 많이 하였다(김미중, 강희선, 2003). 이상과 같이 정신 건강 요인과 의사소통 요인이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나 이들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렇게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경험 관련 연구, 대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주장과 관련된 연구 등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자기주장의 실태에 관한 연구가 보고 되지 않았고, 나아가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의사소통 유형과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이성교제 과정에서 성적자기주장의 정도와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의사소통 유형이 성적자기주장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들 중 중재 가능한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여대생을 위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여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정도를 파악한다.
 - 1) 최초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 정도를 파악한다.
 - 2) 최근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 정도를 파악한다.
 - 3) 이성교제 시 최초와 최근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차이를 비교한다.

2.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한다.
 - 1) 자존감, 정신건강, 의사소통 유형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성관련 경험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차이를 비교한다.
 - 3) 자존감, 정신건강, 의사소통 유형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파악한다.

C. 용어의 정의

1. 성적자기주장

성적자기주장은 타인의 성욕구나 의도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욕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Patricia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Patricia 등 (1997)에 의해 개발되고 표준화된 성적자기주장 척도 (Sexual Assertiveness Scale)를 이용하여 원치 않은 성접촉 시의 거절 관련 6문항과 성접촉 시에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콘돔 사용 관련 6문항을 합한 12문항을 연구자가 pilot study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Argyle, 197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지각정도를 말하며 Rosenberg (1965)에 의해 개발된 자아존중감 (self-esteem scale)의 10개 항목을 4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정신건강

정신건강이란 개인이 속한 전통과 문화의 틀 안에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즉 독립적, 자주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병에 걸리지 않는 저항력과 성숙, 원만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환경을 바람직하게 조성하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하며 알맞게 만족하고 또한 성공과 행복을 적절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체와 통합된 전체를

말한다 (이희선, 1995).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간이 정신진단 검사 (SCL-90-R : Symptom Check List-90-Revision)의 일부를 사용하여 우울 13문항, 불안 10문항, 적대감 6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정신건강으로 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의사소통 유형

의사소통이란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과정이다 (송성자, 1985). 본 연구에서는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긴장을 처리하는 공통된 방법을 Satir (1972)가 분류한 4가지 역기능 의사소통 즉,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과 일치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이상순 (1998)에 의해 개발된 의사소통 유형 도구를 이용하여 회유형 17문항, 비난형 13문항, 초이성형 11문항, 산만형 13문항의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값이 높으면 역기능 의사소통을 한다고 평가하고, 일치형 19문항의 점수가 높으면 일치 의사소통을 한다고 평가하였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15개 대학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편의 추출이 이루어져 수도권 지역의 여대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II. 문헌 고찰

A.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이 장에서는 여대생의 이성교제와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여대생의 이성교제

여대생 시기는 발달 과정상 청소년기 후기에서 성인기 초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가치를 명료화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여 야망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인생계획을 세우는 때로 성숙, 친밀성 및 주체성의 발달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 (권미경, 김남선, 김혜원, 1998). 특히, 성적 성숙의 일차적 관문인 성적 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마지막 고비에 있거나 가까스로 확립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윤가현, 1990).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성인 수준만큼 완숙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보편화와 정규 교육 연한의 연장으로 인해 결혼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성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많은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이은숙, 선광숙, 1998).

여대생은 학업에서의 성취와 졸업 이후의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선배, 후배, 동기, 동성친구, 이성친구 등의 인간 관계를 확대해가고, 이 과정에서 본격적인 남녀간의 이성교제의 경험을 시작하게 된다. 여대생들에게 이성교제는 더 이상 결혼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즉, 과거의 여성에게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애나, 결혼, 가족의 구성이 여성의 삶의 목표였다면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그것만이 삶의 목표가 아닌 것이다. 이성교제는 관계 자체를 위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고 과정에 목적을 둔 일종의 프로젝트가 되면서, 여대

생은 연애라는 이성교제를 통하여 의식적으로 자아를 연출하고, 여성성을 연기하면서 이를 통해 자아를 발견/확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김현경, 2002).

여성의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성세포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된 후에도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성에 따른 상이한 경험을 통하여 사회 구조 내에서 학습되고 내재화된 가치에 따라 생물학적 성 (sex)과 문화적인 성 (gender)이 상호 작용되어 그 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성에게 성적 동기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호르몬이나 내적 작용의 형태이라기보다는 문화적 학습에 더 많이 의존되어 개발되었으며 (임능민, 1973; 정동철, 1978) 개인 혼자만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사회적 욕구로 인식되어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는 여성이 이성 교제하는 과정에서도 표출되는데, 성관계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우발적이면서도 갑작스러운 경험이라고 표현하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성 주도적이었으며, 여성에게 동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고, 설사 확인하더라도 여성의 거절이 완곡한 승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여성의 동의가 성관계의 기준이 아니라 여성의 거절을 불사하는 남성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숙경, 1993). 한국성문화 연구소에서 1998년도에 시행한 대학생의 성행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 관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남학생은 충동과 사랑, 쾌락이 주요 이유이지만 여학생은 사랑 (74.6%), 거절을 못해서 (39.8%),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30.4%) 로 정서적인 문제, 관계유지, 거절의 기술 부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데이트 파트너나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성욕구나 성적 흥미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런 불일치에 직면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유발되는데, 이는 새로운 파트너와의 최초의 성행동뿐 아니라, 데이트를 한 지 오래된 관계에서도 성 관계나 혹은 평소에 하지 않던 특별한 성적 활동을 시도할 때 빈번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 (Blumstrin & Schwartz, 1983; Byers & Lewis, 1988; O'Sullivan & Byers, 1996).

이런 성적 불일치 상황에서, 남녀 모두 자신의 성적 의도와는 다르게 모호한 의사소통 방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성적 친밀감의 타협과정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Krahe', Scheiberger-Olwig & Koplín, 2000). 한 파트너가 실제

로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성관계에 동의하거나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의도와는 다른 애매모호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이에 두 가지의 주된 방식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예’의 의미일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명목상 저항 (token resistance)이며, 다른 하나는 ‘아니오’의 의미일 때 ‘예’라고 말하는 성적 응낙 (compliance)이 있다 (Shotland & Hunter, 1995). 이러한 명목상 저항은 정직한 의사소통을 막고, 여성의 거절을 무시하도록 남성을 조장하며, 여성을 작위적으로 보이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Muehlenhard & Hollabaugh, 1988). 또한 성적 접촉에서 타협할 때 애매모호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상호간에 성적으로 공격적 행동화를 조장하며 성적 희생자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증가되게 된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의사소통은 성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며, 명목상 저항은 남성들에 있어서 공격적인 성행동을 할 가능성과 일관되게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성적 응낙은 남녀 모두에게 성폭력의 예측변인은 아니었지만 성피해자를 만드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드러났으며, 성폭행의 경험이 증가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었다 (Krahe et al., 2000; Shotland & Hunter, 1995).

그러므로 여대생들에게 이성교제가 결혼과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관계로 강조되고 있으나, 서로 간의 성적 접촉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여대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성적자기주장이 요구된다.

2.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자기주장(assert)이란 “긍정적으로 확실하고 솔직하게, 또는 강하게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Fensterhrim과 Bear (1975)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행동 또는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행동으로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Hersen과 Ballack(1976)은

자기주장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먼저, 부정적인 자기주장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비합리적인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며, 긍정적인 자기주장(positive assertive)은 칭찬, 감동, 승인, 동의의 긍정적인 감정표현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런 자기주장 행동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더 빨리, 쉽게 성취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만족할 수 있으며 곤란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Fritchie & Melling, 1991). 또한 성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혀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난 여학생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접촉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그 상황을 피해가는 능력인 자기주장은 우발적인 성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개인적인 능력이다.

성적자기주장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성적자기주장은 인간의 자율권에 기초한 일반적인 자기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모든 성적인 경험에 모두 적용되는 인간의 기본권리 중 하나이다 (Patricia et al., 1997).

성적자기주장에 대한 연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히 넓게 연구되어져 있다(이선경, 2000, Harlow et al., 1993, 1998; Muehlenhard & Linton, 1985; Quina, Harlow, Morokoff, & Saxon, 1997; Patricia et al., 1997). 성적 자기주장은 위험한 성행동의 횟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성적 자기주장은 안전하지 않은 삽입성교, 항문성교와 위험한 파트너와의 성교율을 낮춘다. 이것은 콘돔 사용과 관련되어 성적으로 자기주장적인 여성은 삽입 성교율과 콘돔 사용 없는 삽입 성교율이 낮으며, HIV 감염의 가능성이 높거나 다양한 파트너와 성교를 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성교율이 낮다 (Harlow et al., 1993). 이는 대학생 그룹과 지역사회 그룹을 동일하게 조사한 연구에서도 성적 자기주장은 안전한 성적행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파트너와의 콘돔사용에 대하여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로 지지되고 있다 (Quina, Harlow, Morokoff, & Saxon, 1997).

여성의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몇몇의 연구를 살펴보면, Muehlenhard과 Linton (1985)는 28개의 자가 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원치 않은 성교, 애무, 키스, 만남들에 대하여 여성의 거절하는 능력을 보았다. 각각의 문항은 남성이 여성에게 만남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간단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여성이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묻고 질문하였으며, 거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시하게 하였다. 이들은 원치 않은 성적 상황에서 여성이 잘 거절하는 것을 성적자기주장이라 하였다. 이는 이선경 (2000)의 연구에서도 원치 않은 성접촉에서 어떻게 거절하였는가에 대한 그 정도를 표시하게 하여 그 능력을 성적 상황에서 자기주장 정도라 하였다.

Hurlbert (1991)는 Hurlbert Index of Sexual Assertiveness로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보다 점수가 낮으면 성적 자기주장능력이 낮은 여성으로, 이보다 점수가 높으면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여성으로 나누어 비교 하였을 때,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여성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서 성활동 빈도와 오르가즘에 도달한 횟수가 높고, 주관적인 성적욕망이 높았고 결혼 만족도와 성만족도가 높았다.

Patricia 등 (1997)은 여성의 성적자기주장도구 (Sexual assertiveness Scale; SAS)를 개발하면서 성적자기주장을 주장, 거절, 예방의 세 가지 하부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다. 주장요인은 파트너와 성접촉 상황에서 본인의 만족을 위해 성적접촉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절 요인은 파트너와의 성접촉 상황에서 원치 않은 성접촉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여,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은 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게 되는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 여성 상담소가 전국 미혼 20~3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성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도 답한 사람이 72%, 혼전성관계에 대하여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가 49.2%, ‘결혼을 전제로 가능하다’가 27.45%에 달하지만,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36.2%였으며, 이중 서로 합의하에 가졌다는 경우는 58.7%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성욕구에 대한 질문에 ‘아무 느낌이 없다’가 40.8%, 자위행위의 경험도 59.8%가 전혀 없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여 최근의 대중문화를 통해 보여지는 혼전 성관계나 동거

에 빈번한 노출 때문에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을 그렇게 앎을 보여 준다 (이효용, 2004년 12월 8일).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Prtricia 등 (1997)이 개발한 성적자기주장(Sexual Assertiveness Scale)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장요인을 제거하고 거절과 예방요인만 이용하여 본 연구 결과에 활용하였다. 주장요인의 특성이 자신의 성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것인데, 한국의 여대생들에게는 성적인 접촉을 먼저 요구하는 행동 그 자체가 한국적 문화적 배경에서 개발되지 않았고, 예비연구에서 거절요인과 예방요인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아 전체 성적자기주장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대생에게 성적자기주장은 이성교제 중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이성교제 시에 여성 자신이 성적인 존재로서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성적자기주장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므로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성적 자기주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B. 성적자기주장 관련 요인

본 장에서는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들로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의 하부 요인으로 우울, 불안, 적대감과 의사소통 유형 중 역기능 의사소통인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과 일치 의사소통의 특성에 대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global self-esteem)이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Rosenberg, 1979). 자아존중이나 자기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자기가 자신에게 가지는 애착, 사랑, 신뢰, 존중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건전한 성격발달과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다 (송인섭, 1986).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는데, 자아존중감의 발달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데, 개인의 측면에서 성장을 위해서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는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Sullivan, 1953).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습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상실하게 만든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전하고 만족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역동적인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Satir, 1972).

임승규 (1999)의 연구에서 낮은 주장 정도를 보인 청소년들은 열등감,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등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 높은 주장정도를 보인 청소년들은 자기주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주장 훈련이 부적절한 사고 형태인 낮은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정서적 불안이나 적대감을 변화시켜 대인관계에서의 개인의 행동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체계나 맥락을 바꿈으로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킬 수 있고 한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끊임없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선경 (2000)은 성장과정에서 이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 능력이 이성교제 간의 성접촉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낮은 자기주장으로 원치 않은 성접촉의 경험에 더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자기주장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게 되는 하나의 방법적이고 표현적인 능력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지키게 되는 방어적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자아존중감이 성적자기주장에도 관련을 맺고 있는 요인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 정신건강

정신건강의 개념에 대하여 서울대 교육연구소의 교육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최적의 정신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기능의 모든 하위 영역이 조화되는 이상적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에서 사용되는 정신기능은 인간의 심리정서적인 부분을 의미하며 이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여대생이 주로 경험하는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로 주로 우울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정선자, 1981).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에서는 특별히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부분 중 부정적 정서인 우울, 불안과 적대감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적대감을 정신 건강의 하위 요인으로 보고 이들이 조화되는 상태를 정신건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1) 우울

우울이란 슬픔이나 무력감, 좌절, 자기혐오, 흥미상실 등과 같은 정서적 측면의 결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낮은 자존감, 무능력감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 그리고 식욕부진이나 불면증, 정신적 흥분, 피곤함, 위장장애, 체중감소 등을 동반하는 신체적 증상까지를 모두 포함 하는 개념이다 (민성길, 2001).

의사소통 기술의 하나인 자기주장 훈련에 대하여 이승렬 (1999) 등은 우울이나 자살관념에 대한 효과검정을 하였고, 자기주장 훈련을 통하여 우울과 자살관념이 줄어들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우울은 역기능적 신념과 관련이 있어, 이는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려 대인관계의 만족을 떨어뜨리고 안정애착을 떨어뜨리고 자기주장을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김주연, 2002; 이복동, 2001).

2) 불안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으며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상황이 모호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쉽게 피곤해지며 주의집중이 안되는 등 다양한 부적 증상들을 경험한다. 현대인들은 타인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는 자기방어적 본능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권성민, 이철구, 이현림, 2003). 불안한 사람들은 특히 타인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자기노출을 꺼리게 되고 이는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를 유도하여 자기패배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유지하게 만든다 (Meleshko & Alden, 1993).

자기주장훈련이 대상자의 자기노출을 유도하는 유용한 상담기법으로 활용되면 서 불안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상담프로그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인지적 불안, 정서적 불안, 그리고 생리적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으며 (권성민, 이철구, 이현림, 2003; 박분

희, 1988; 양동철, 1983; 최경희, 1990; 홍경자, 1981; 홍경자, 노안녕, 1994; Augell, 1974; Kincaid, 1978), 자기주장 훈련의 불안감소의 효과가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박분희, 1988; 최경희, 1990).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원치 않은 성적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연구에서도 불안이 높을수록 성관계 응낙 동기가 높아지며, 이는 불안 특성이 강박적으로 타인과 매우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지 않을까봐 걱정하며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유외숙, 2004). 중요한 타인인 파트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파트너가 떠날까봐 염려를 한다면, 이런 두려움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이 파트너에게 정서적, 행동적으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Bowlby, 1973). 따라서 불안수준이 높은 사람은 데이트 관계를 잘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며 아울러 연애관계에 대한 비관적인 신뢰들을 많이 가지는 취약성으로 인해 데이트 과정에서 성관계의 협상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파트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과도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하게 되며 이런 결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에 더 많이 응낙하게 되는 것이다 (유외숙, 2004).

3) 적대감

적대감과 자기주장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적대감은 불안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공격성은 적대감을 감소시키려고 행해진 행동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런 공격적 행동은 상호억제 치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Evans & Strangerland, 1971). Bandura (1973)는 공격성의 수정과 통제에 의한 방법으로 참여적 분보기에 의한 주장성의 발달을 들며 복종적인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자기의 사회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주장적 반응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주장훈련이 공격적 행동의 변화에 대한 효과가 있으며 (Bandura, 1973; Evans, 1970; Evans & Strangerland, 1971; Staub, 1971), 반사회적 공격성으로 이끄는 적대감을 감소시키

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Rimm, Hill, Brown & Stuart, 1974).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의 하부요인인 우울, 불안 적대감은 자기 주장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이 성적자기주장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Jones Hopkins 의과대학 정신과의 임상심리학자 Derogatis 등 (1974)이 개발한 ‘Symptom Check List - 90 - Revision을 한국 실정에 맞게 김재환과 김광일 (1984)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의 9개 차원 중 우울, 불안, 적대감의 세 가지 차원을 측정하여 정신건강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울 문항에는 삶에 대한 관심의 철수, 동기의 결여, 활력의 상실, 절망감 및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의 저조 등 임상적으로 우울증의 증상과 일치되는 증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 및 불안과 관련된 신체증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대감 영역에는 적대감, 공격성, 자극 민감성, 격분, 울분 등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내포하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이 반영되어 있다.

3. 의사소통 유형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서 순환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속되므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고, 태도, 생각, 사상, 느낌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개인의 인간성을 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된다고 하였다 (Myers, 1986). 즉,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느낌,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개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관계의 개선에는 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의사소통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이라고 하였다 (송성자, 1985).

Sarir (1972)는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대처의 형태로 긴장을 처리하는 공통된 방법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 하였으며, 체계론적 의사소통 개념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 네 가지 유형을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유형

회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가치 없이 여겨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고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비위를 맞추면서 말하고, 남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에 동의한다. 회유형의 가치를 부정하고 스스로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낸다. 회유형은 마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덜어주기 위한 것처럼 행동한다. 또한 회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반대할 경우 생길 위기에 대해 걱정하며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회유는 자신이 살아남고 안정을 유지하려는 방법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회유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을 존중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회유형을 극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돌보아 자기가치의 동등한 감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비난형

비난형은 회유형과는 정반대의 유형이다. 비난형의 사람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이 잘못을 찾고 우월하게 행동하며 타인을 무시한다. 겉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나 내적으로는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에게 복종할 만한 사람만 옆에 있으면 자신이 중요하게 되었다고 느끼고 비난을 시작하게 된다. 이들은 깊은 내면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털어 놓으면 죽을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실패감에 빠져있다. 비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격하시키고, 자신과 상황에만 가치를 둔다. 비

난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한다. 그러나 비난자에게 강한 힘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비난자는 쉽게 무너진다. 그들은 종종 적대적, 권위적, 폭력적으로 묘사되어진다. 그러나 비난형의 사람은 내면적으로 외롭고 실패감을 느끼며 실제의 자기 자신의, 욕구를 숨긴다. 심하게 비난하는 것은 도움을 구하기 위한 빌미를 찾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였다 (Satir, 1972). 자기 내면의 감정을 인식하여 타인을 수용하는 것은 비난유형을 변형시키는 방법이 된다.

3) 초이성형

초이성형의 사람은 의사소통에 있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부정한다. 지나치게 합리적인 상황만을 중요시하며 기능적인 것만을 말하고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나 논리에 근거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위협이 있어도 호언장담으로 자신의 가치를 세우려 하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며 매우 정확하고 이성적이며 조용하고 냉정하며 차분하다. 예를 들면 “나는 춥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오늘은 춥다” 라고 말함으로써 가능한 한 감정보다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들의 심리적인 자세는 경직되어 있고, 공격적이며 항상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차갑고, 감정적이지 않으며 고립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초이성형은 겉으로 보기에 차갑고 건조하며 지루하게 보인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 감정적이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다. 대인관계에서 융통성이 없고, 원칙중심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이성형이 이상적인 목표로 보이기도 한다. 초이성형을 변형시키려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애정, 감정, 지적인 것을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4) 산만형

산만형은 일반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나 익살맞은 것과 혼합된 것으로 혼돈스러운 것을 말한다. 산만형은 초이성형과는 정반대의 유형이다. 산만한 유형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며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노력한다. 산만형의 사람들은 생각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어떤 하나의 특별한 주제에 초점을 집중할 수 없다. 생각 없이 책임 없는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주의집중을 잘 못한다. 위협을 무시하고 마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행동하여 주위를 혼란시킨다.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주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이들의 생존방법이다. 이들에게는 자신, 다른 사람, 상황 모두가 중요하지 않다. 산만형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이 이러한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변화를 위한 융통성 있고 창의적이고 개방적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상의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의 역기능 의사소통 유형은 대부분 아동초기에 학습되는 것이고, 의사소통은 학습된 산물이기에 그것은 재학습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형태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시점에서라도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며,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런 가능성만이 치료과정을 이끌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Satir, 1972).

의사소통은 상대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고 역기능의 정도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개인의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고유한 의사소통 유형을 가지고 있다 (송성자, 1985).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같은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역기능 의사소통은 누구에게서나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으며 한 가지나 두 가지 이상이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다른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해야 하지만 긴장 속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는 여러 개의 유형보다는 고정된 유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특정 역기능 의사소통 유형에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극복방법을 배움으로써 일치형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5) 일치적 의사소통

Satir (1972) 는 역기능 의사소통으로부터 벗어나 일치 의사소통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치 의사소통은 자신의 독자성을 존중하며 개인의 에

너지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에너지가 자유롭게 교류되며 개인적인 특질을 존중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다. 일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유로우며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데 있어 자유롭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변화에 대하여 융통성이 있고 개방적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상태임과 동시에 좀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또 다른 선택이다. 또한 기능적이며 원만하고 책임감이 있고, 정직하며 친근하며, 능력과 창의성이 있고 당면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Satir (1972)는 체계론적 의사소통 개념을 근거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고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처방법과 대처형태를 관찰하여 그것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불균형적인 상태에서 위협을 인식하고 자기존재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다는 것이다. 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메시지를 경청하며 명확하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대답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자기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불일치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그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할 때나 자존심이 상한 경우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반응을 보고 자신을 규정하게 될 경우에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며, 역기능적인 전달자는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듣는 사람이 탐색하거나 추론하도록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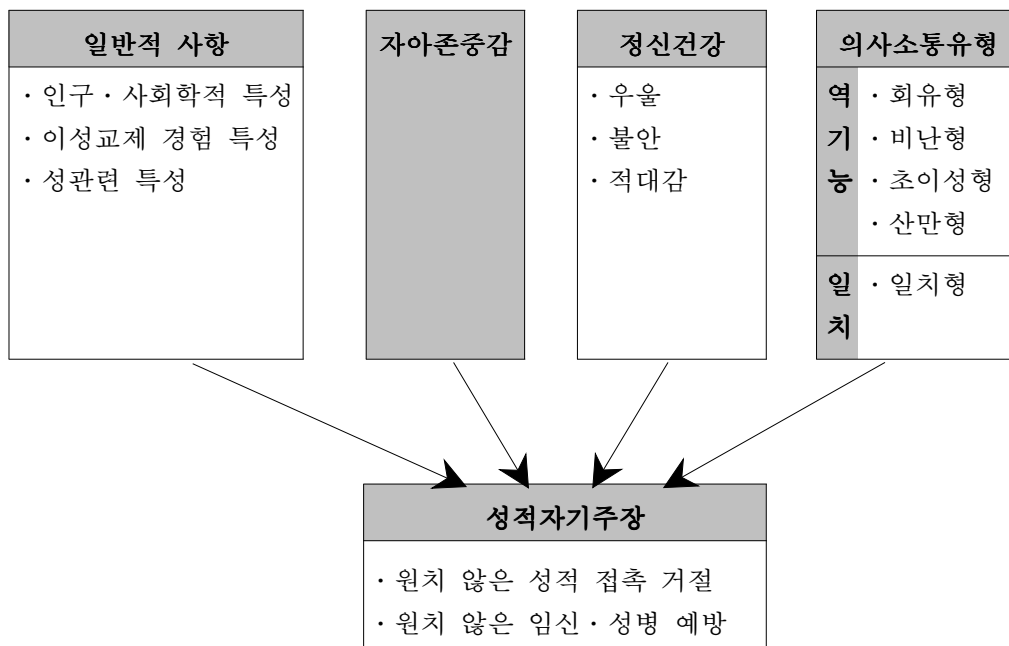
이렇게 한 인간의 의사소통 형태는 가변적이라기보다는 항시적 성격이 강하므로 여대생의 의사소통 형태는 성적인 상황이라 하여도 동일하게 반영될 것이다. 오히려, 여성에게 남성의 성적 시도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전통적인 성각본’에 익숙한 여성일수록 성적인 친밀감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성적 상황에서 성적자기주장을 다르게 하고 있는 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헌을 통하여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의 요소 중 불안, 우울, 적대감과 의사소통 유형이 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찰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이 일반적인 자기주장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성적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부족하다. 따라서 성적자기주장과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고찰되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추출된 개념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그림 4>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정도와 그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후향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의 여대생을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1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4년제와 전문대의 비율을 고려하여 편의표출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 총 43학교 가운데 9학교에서 625명과 경기 소재 4년제 대학 총 30학교 가운데 3학교에서 385명, 경기 소재 전문대학 41학교 가운데 2개교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21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쪽으로 편향된 응답을 하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질문의 초반에 성적 행위에 관한 민감한 질문을 할 경우 답하는데 불편하여 응답을 안 할 수가 있어 응답자 반응율을 높이기 위해 질문의 민감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표출은 3단계에 의해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대학생들을 편의 표출하였고, 둘째 단계에서는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과 여학생만을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이 강의 시간 전에 이루어져서 남녀가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 여학생들만 설문지를 하게 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 녀 대학생 모두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여학생의 설문지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지 문항 중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표기한 것만을 추출하였다.

C.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설문지의 내용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측정도구 SAS (12문항) (Patricia et al., 1997)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10문항) (Rosenberg, 1965), 정신건강 SCL-90-R (Derogatis et al., 1974)의 문항 중 우울, 불안, 적대감 (29문항)과 의사소통 유형 (73문항) (이상순, 1998)에 대한 측정도구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 11문항과 성경험과 관련된 문항 13문항으로 총 130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록1 참조>.

1. 성적자기주장

성적자기주장 척도 (Sexual Assertiveness Scale)는 Patricia 등 (1997)에 의해 개발되고 표준화 작업이 된 것이며, 이 척도는 원하는 성적 접촉을 주장하는 것,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것, 일정한 파트너와의 성교에서의 임신과 성병 예방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성적 접촉을 주장하는 요인을 빼 원치 않은 성적 접촉 거절 요인 6문항과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 6문항을 포함하여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거절요인에는 거절 (3문항)과 거절 못함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에는 성교 시 콘돔 사용하는 문항 (3문항)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문항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거절 못하는 문항의 점수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문항의 점수를 역산 한 후,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성적자기주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거절 요인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는 .74이었고, 임신과 성병예방요인은 .82, 성적 자기주장의 신뢰도는 .82이었다.

이 도구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성건강 관련 연구의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생 1인과 석사생 2인이 검토한 것을 성건강을 주 연구영역으로 하는 간호대학 교수 2

인에게 내용과 구성타당도를 검증받아 실제 대학생 50명에게 pilot test를 하였다. pilot test에서는 거절 요인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는 .75, 임신과 성병예방 요인은 .88, 이 두 요인으로 이루어진 성적 자기주장 도구의 신뢰도는 .87이었다. 그리고 4명의 학부생과 심층 면담을 하여 문항 내용이 문화적으로 이해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 도구에서 "I put my mouth on my partner's genitals if my partner wants me to even if I don't want to" 라는 항목의 경우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상 'oral sex' 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경험이 없어 '전혀 아니다' 에 치우친 결과가 나와 "싫더라도 파트너의 요구에 따라 애무해 준다" 라고 수정하였다. 또한, 이성 친구와 신체 접촉 정도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있어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파트너가 요구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성교를 거절 한다 (거절할 것이다)" 라고 과거형과 미래형 동사를 동시에 서술하였다. 또한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험인지, 가상적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 것인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절 요인의 내적신뢰도 (Cronbach's α)는 .72이었고, 임신과 성병예방 요인은 .80이었고, 성적 자기주장도구의 신뢰도는 .82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정도로 Rosenberg (1965)에 의해 개발된 Self-esteem scale을 최정아 (1996)가 번안한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한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 (4)' 까지 4점 척도이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을 역산한 후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과 서로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최정아 (1996)의 연구에서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3. 정신건강

정신건강에 대한 문항은 미국 Jones Hopkins 의과대학 정신과의 임상심리학자 Derogatis 등 (1974)이 개발한 ‘Symptom Check List-90-Revision을 한국 실정에 맞게 김재환 과 김광일 (1984)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간이 정신진단검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개의 하위임상척도 -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및 기타 항목을 포함한 총 9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정신 문제인 우울 (13문항), 불안 (10문항), 적대감 (6문항)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한 가지 심리적 증상을 대표하고 있으며,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 (1점), 약간 있다 (2점), 웬만큼 있다 (3점), 꽤 심하다 (4점), 아주 심하다 (5점)” 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의 범위는 29점~145점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한국형으로 표준화 할 당시 우울 문항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89, 불안은 .86, 적대감은 .6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문항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90, 불안은 .86 적대감은 .80으로 정신건강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72였다.

4. 의사소통 유형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문항은 Satir (1972)의 이론에 의한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상순 (1998)이 개발한 총 73문항으로 회유형 (17문항), 비난형 (13문항), 초이성형 (11문항), 산만형 (13문항), 일치형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 신뢰도는 개발당시 회유형 문항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66, 비난형은 .74, 초이성형은 .56, 산만형은 .72, 일치형은 .7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가 회유형은 .78, 비난형은 .76, 초이

성형은 .61, 산만형은 .71, 역기능적 의사소통 신뢰도는 .80, 일치 의사소통 유형은 .74였다.

이상의 도구를 요약하면 <표 1>와 같다.

<표 1> 측정도구 신뢰도

측정도구	하위 척도	문항 수	개발자	수정자	점수 범위	신뢰도
성적자기주장 (SAS)		12	Patricia, 등 (1997)	연구자	12~60	.82
	거절	6			6~30	.72
	예방	6			6~30	.80
자아존중감		10	Rosenberg (1965)	최정아 (1996)	10~40	.83
정신건강 (SCL-90-R)		29	Derogatis 등 (1974)	김재환 김광일 (1984)	29~145	.94
	우울	13			13~65	.90
	불안	10			10~50	.86
	적대감	6			6~30	.80
의사소통 역기능 의사소통		73	Satir(1972)	이상순 (1998)	54~270	.72
	회유	17			17~85	.78
	비난	13			13~65	.76
	초이성	11			11~55	.61
	산만	13			13~65	.71
일치 의사소통		19			19~95	.74

D.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사전조사는 2004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지역 1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고 현재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면담이 가능한 대상자로부터는 직접,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문지의 문항 옆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반응을 수렴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설문 응답시간은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설문 작성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봉투에 설문지와 응답에 대한 보답으로 펜을 넣어 그 펜으로 설문을 기입한 후 펜은 응답자에게 주고 설문지는 봉투에 담아 회수하였다.
2. 일부 학교는 전화나 서면으로 연구취지와 설문작성 지침에 대해 설명한 후 담당 교수님이 수업시간 전이나 후에 직접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자리에서 직접 회수하였다.
3.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문지를 개별봉투에 넣어 배부하여, 다음 강의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으며,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14개교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210부 중 1,092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0%였으며 이중 남학생의 설문지 369부를 제외하고,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의도적으로 1번이나 3번으로 체크한 경우) 을 한 62부를 제외한 661부 중에서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표기된 525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분포는 서울시 4년제 대학 9개교 326명(62.1%), 경기도 4년제 대학 3개교 129명(24.6%), 경기도 3년제 대학교 2개교 70명(13.3%)으로 총 14개교의 525부이었다. 최초의 이성교제가 현재의 이성교제일 경우 최근 성적

자기주장 항목에만 표기하도록 하여 최초와 최근의 성적자기주장의 비교 분석에
서는 제외되어, 최초와 최근의 성적자기주장 비교는 248부만 분석되었다.

E.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12.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여대생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이성교제 경험 특성, 성관련 경험 특성, 자
아존중감, 정신건강, 의사소통 유형, 성적자기주장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
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여대생의 인구학적인 특성과 이성교제 경험 특성, 성관련 경험 특성에 따른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의 차이는 t-test, Wilcoxon Signed Rank 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추후검사로 scheffe method를 이용하여 각
그룹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최초 이성교제와 최근 이성교제 시의 성적자기
주장 정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정도와 제 요인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A.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

1. 여대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여대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응답자 525명의 연령 분포는 만 17세~29세로 평균 21.13세 였다. 1학년이 21.7%, 2학년이 13.9%, 3학년이 31.9%, 4학년이 32.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과는 인문·사회 계열은 44.0%, 의학·간호학 계열은 23.6%, 이공 계열은 20.2%, 예체능 계열이 12.2%이었다. 종교는 개신교는 37.5%, 천주교, 17.0%, 불교 9.3%, 그 외의 종교인은 1.6%이며, 종교가 없는 경우는 34.6%이었다. 응답자의 66.6%가 가족과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자취 (16.5%), 기숙사 (12.3%)에 살고 있었다.

한달 용돈은 48.1%가 30만원 이하이며, 42.5%가 30만원~50만원이었고, 50만원 이상은 9.4%였다. 용돈의 출처는 부모님이 주는 경우가 53.3%,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15.1%, 부모님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여 용돈을 충당하는 경우는 31.6%였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특성은 과반 수 이상이 3, 4학년 이었으며, 인문·사회계열과 의·간호학계열을 이과계열로 보았을 때, 각각 반 수를 이루었으며, 대다수가 친척을 포함한 가족과 거주하며, 반수 이상이 30만원 이상의 용돈을 쓰는 집단이었다.

<표 2> 여대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25)*

특성	구분	인수(%)	평균±표준편차
연령	17세 - 19세	83(16.0)	21.13±1.73
	20세 - 22세	330(59.7)	
	23세 - 29세	120(24.3)	
학년	1학년	75(21.7)	
	2학년	48(13.9)	
	3학년	110(31.9)	
	4학년	112(32.5)	
전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227(44.0)	
	이공계열	104(20.2)	
	의학·간호학계열	122(23.6)	
	예체능계열	63(12.2)	
종교	개신교	190(37.5)	
	천주교	86(17.0)	
	불교	47(9.3)	
	기타	8(1.6)	
	없음	176(34.6)	
주거형태	가족과 거주	335(66.6)	
	친척집에 거주	11(2.2)	
	하숙	10(2.0)	
	자취	83(16.5)	
	기숙사	62(12.3)	
	기타	2(0.4)	
한달용돈	30만원 이하	235(48.1)	
	30~50만원	208(42.5)	
	50만원 이상	46(9.4)	
용돈출처	아르바이트	78(15.1)	
	부모님	275(53.3)	
	둘 다	163(31.6)	

* 무응답 제외

2. 여대생의 이성교제 경험 특성

대상자의 이성교제 경험과 관련된 특성은 <표 3>과 같다. 525명의 응답자 중 34.0%가 1명과 이성교제 경험을 하였으며, 4명 이상은 21.6%였다. 이성교제 시 비용지불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하는 경우가 55.2%였으며, 32.6%가 남여가 비슷하게 비용지불을 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내는 경우는 2.5%였다. 응답자의 3.2%가 이성과 동거경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66%가 2명 이상과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성교제 시 데이트 비용지불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하였으며, 이성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는 19명이었다.

<표 3> 여대생의 이성교제 경험 특성

(N=525)*

특성	구분 혹은 범위	인수(%)
이성교제 경험	1명	178(34.0)
	2명	133(25.4)
	3명	99(18.9)
	4명 이상	113(21.6)
데이트 비용 지불	남>여	290(55.2)
	남=여	171(32.6)
	여>남	13(2.5)
	무응답	51(9.7)
이성과 동거경험	없음	464(88.4)
	있음	17(3.2)
	무응답	44(8.4)

* 무응답 제외

3. 여대생의 성관련 경험 특성

대상자의 성관련 경험 특성은 <표 4>와 같다. 여대생의 성 욕구 해소에 있어서 49.8%가 성욕구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였으며, 이성과 애무나 접촉을 통해서가 26.6%, 취미생활 몰두가 16.9%, 의지로 참는 경우가 16.3%, 종교 활동으로 참는 경우가 11.6%,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는 11.4%, 운동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 해소하는 경우가 11.0%, 이성과의 성교를 통해서는 7.8%라고 답하였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비디오를 보며 성욕구를 해소한다고 하였다.

여대생의 자위행위 경험은 73.1%가 경험이 없으며, 10.8%가 현재는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며 15.3%가 가끔 하며, 0.8%가 자주한다고 답하였다.

성폭력 피해경험은 77.1%가 없었으나,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은 신체적 성추행 (55.8%), 언어적 성희롱 (39.2%), 강간 (5.0%) 경험이 있었다.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40.0%, 학교 선후배가 22.5%, 안면 있는 사람이 18.3%, 교사가 5.8%, 가족·친척이 5.0%였다.

성문제를 경험하였을 때 상담을 하지 못한 이유는 성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불편해서라고 (55.5%)가 주된 이유였고, 그 외 어디서 상담할지 몰라 (27.6%), 상담할 만큼 큰 고민이 아니어서 (25.2%), 성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20.0%),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18.1%), 잘못을 비난받을 것 같아서 (11.6%), 내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서 (9.3%)로 조사되었다

성교 경험은 전체 대상자의 28.1%가 있다고 하였으며, 첫 성교 나이는 16세에서 26세의 분포를 보이는데, 평균 20세에 첫 성교를 경험하였다. 성교 파트너는 96.1%가 이성친구로 가장 많았으며, 2.3%가 아는 사람, 이성친구,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와 성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였다. 성교 파트너 수는 1명인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은 20.0%, 3명은 9.2%, 4명 이상은 8.3%였다. 성교 시 항상 피임을 하는 경우는 47.9%, 때때로 한다는 40.1%였으며,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11.3%에 달했다. 주로 쓰는 피임방법은 콘돔 (63.7%)이 가장 많았고, 주기체크 (20.2%)나 여타 피임도구 사용 (4.8%), 응급피임약 복용 (0.8%), 콘돔과 주기체크, 피임도구, 응급피임약을 혼용하는 경우 (10.5%)로 조사되었다. 성교 중 성

병 예방을 위해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는 34.4%이나, 나머지는 때때로 사용하거나 (41.1%),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20.5%). 성교 후 임신과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9명이었으며 이 9명이 모두 유산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성관련 경험 특성은 성욕구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반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성과의 애무나 접촉을 통해 성욕구를 해소하였다. 자위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1/4이었고,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가 1/4정도였고 가해자로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성교제 경험자 중에서는 성교경험이 있는 사람은 28.1%였고, 첫 성교 대상은 주로 이성 친구였으며, 성교 시 피임은 때때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주로 콘돔을 사용하며 그 다음이 주기체크라고 하였으며, 성병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도 때때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4> 여대생의 성관련 경험 특성

(N=525)*

특성	구분 혹은 범위	인수(%)	특성	구분 혹은 범위	인수(%)	평균±표준편차
성욕구 해소	성욕구 느끼지 못함	254(49.8)	성교 경험	있음	145(28.1)	20.39±1.77
	이성과 애무나 접촉	136(26.6)		없음	371(71.9)	
	취미생활에 몰두	86(16.9)	첫 성교 나이	16세~26세	31(24.6)	
	의지로 참음	83(16.3)		16세~19세	67(53.2)	
	종교 활동	59(11.6)		20세~21세	28(22.2)	
	자위 행위	58(11.4)		22세~26세	28(22.2)	
	운동, 다른 활동	56(11.0)	첫 성교 대상	이성친구	123(96.1)	
	이성과 성교	40(7.8)		아는사람	3(2.3)	
	기타	12(2.4)		이성친구,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2(1.6)	
	자위 경험	없다	372(73.1)	성교	1명	
있다		137(26.9)	파트너	2명	24(20.0)	
현재는 하지 않는다		55(10.8)	수	3명	11(9.2)	
가끔 한다		78(15.3)	4명 이상	10(8.3)		
자주 한다		4(0.8)				
성폭력 피해	없다	405(77.1)	성교 시	항상 한다	69(47.9)	
	있다	120(22.9)	피임	때때로 한다	57(40.1)	
	언어적 성희롱	47(39.2)		전혀 안한다	16(11.3)	
	신체적 성추행	67(55.8)				
성폭력 가해자	강간	6(5.0)	피임 방법	콘돔	79(63.7)	
	모르는 사람	48(40.0)		주기체크	25(20.2)	
	선후배	27(22.5)		피임도구	6(4.8)	
	안면 있는 사람	32(18.3)		응급피임약	1(0.8)	
	교사	7(5.8)		위 방법 혼합	13(10.5)	
성문제 상담 못한 이유	가족·친척	6(5.0)	성병예방	항상 한다	50(34.4)	
	성문제 드러내는 것 불편	246(55.5)	콘돔사용	때때로 한다	60(41.1)	
	어디서 상담할지 몰라서	123(27.6)		전혀 안한다	30(20.5)	
	큰 고민 아니어	112(25.2)	임신	없다	137(99.4)	
	성문제 인식 못함	89(20.0)		있다	9(0.6)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80(18.1)	유산	없다	137(99.4)	
	잘못을 비난받을 것 같아	51(11.6)		있다	9(0.6)	
	내 문제 외면하고 싶어	41(9.3)				

* 무응답 제외

B.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1.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정도는 <표 5>와 같다.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정도는 최초와 최근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최초 성적 자기주장은 23점에서 60점까지 범위에서 평균 49.36점이었다. 거절 요인은 11점에서 30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균 24.61점이었으며, 예방 요인은 8점에서 30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균 24.81점이었다. 최근 성적자기주장은 23점에서 60점까지 범위에서 평균 49.51점 이었다. 거절 요인은 8점에서 30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균 24.40점이었으며, 예방 요인은 8점에서 30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균 25.10점이었다.

이성교제 경험자 중 성교 경험의 유무로 나누어 최초와 최근의 성적자기주장 정도를 조사하였다. 성교 경험이 없는 여대생의 최초 성적자기주장 측정 점수의 범위는 32점에서 60점까지에서 평균 51.27점 이었다. 거절 요인은 14점에서 30점까지에서 평균 25.17점이었으며, 예방 요인은 14점에서 30점까지에서 평균 26.13점 이었다. 최근 성적자기주장은 29점에서 60점까지에서 평균 51.26점 이었다. 거절 요인은 14점에서 30점까지에서 평균 25.21점이었으며, 예방 요인은 12점에서 30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균 26.08점이었다.

성교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최초 성적자기주장 측정 점수의 범위는 23점에서 60점까지에서 평균 45.63점 이었다. 거절 요인은 11점에서 30점까지에서 평균 23.56점이었으며, 예방 요인은 8점에서 30점까지에서 평균 22.20점이었다. 최근 성적자기주장은 23점에서 60점까지에서 평균 45.26점 이었다. 거절 요인은 30점까지에서 평균 22.46점이었으며, 예방 요인은 최하점 8점에서 30점까지에서 평균 22.68 점이었다.

그러므로 전체 대상자의 최초와 최근의 성적 자기주장은 평균 이상이었고, 거절 요인과 예방요인의 점수는 비슷하였다.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가 성적자기주장과 거절 및 예방요인의 점수가 더 높았다.

<표 5>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N=525)*

구 분	성적자기주장 정도	측정 점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전 체	최초 성적자기주장	23 - 60	49.36 ± 8.18
	거절	11 - 30	24.61±4.30
	예방	8 - 30	24.81±5.07
	최근 성적자기주장	23 - 60	49.51 ± 7.88
	거절	8 - 30	24.40±4.34
	예방	8 - 30	25.10±4.80
	성 무 경 험	최초 성적자기주장	32 - 60
거절		14 - 30	25.17±3.94
예방		14 - 30	26.13±4.23
최근 성적자기주장		29 - 60	51.26 ± 7.18
거절		14 - 30	25.21±3.99
예방		12 - 30	26.08±4.33
유		최초 성적자기주장	23 - 60
	거절	11 - 30	23.56±4.69
	예방	8 - 30	22.20±5.64
	최근 성적자기주장	23 - 60	45.26 ± 8.04
	거절	8 - 30	22.46±4.58
	예방	8 - 30	22.68±5.12

* 무응답 제외

2. 최초와 최근의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의 차이

최초와 최근의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 정도의 차이와 성경험 유무에 따른 최초와 최근의 성적자기주장의 차이를 비교한 것은 <표 6> 과 같다.

최초와 최근의 이성교제가 다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최초 성적자기주장과 최근 성적자기주장은 차이가 없었으며, 그 세부 요인인 거절과 예방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경험이 있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최초와 최근의 성적자기주장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거절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44, p=.017$).

< 표 6 > 최초와 최근의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의 차이

특성		최초	최근	t	p
		평균±SD	평균±SD		
전체 이성교제 (N=248)	자기주장	49.45±8.10	49.40±7.98	.14	.892
	거절	24.63±4.28	24.41±4.35	.97	.331
	예방	24.83±5.07	24.92±4.95	-.34	.734
성 무 교 (N=162) 경 험	자기주장	51.41±6.98	51.81±6.84	-1.35	.180
	거절	25.16±3.97	25.48±3.83	-1.54	.126
	예방	26.23±4.17	26.39±4.08	-.90	.368
유 (N=84)	자기주장	45.65±8.79	44.73±7.80	.91	.368
	거절	23.64±4.66	22.39±4.54	2.44	.017
	예방	22.11±5.60	22.09±5.32	.04	.972

C.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관련 요인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의사소통 유형의 정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각 요인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각 요인의 합에 문항 수를 나누어 표준화된 값을 제시하였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10문항)은 가능 점수 범위 10점에서 40점에서 최하 17점, 최고 40점으로 평균 29.67점 이었으며 표준화된 값은 2.97점이었다.

2. 정신건강

정신건강 (29문항)은 가능점수 범위 29점에서 145점으로 측정 점수는 최하 29점, 최고 122점으로 평균 58.70점이었고 표준화된 값은 2.02점이었다. 하부요인으로 우울 요인 (13문항)은 가능점수 범위 13점에서 65점으로 최하 13점, 최고 62점으로 평균 28.64점이었고, 표준화된 값은 2.20점이었다. 불안 요인 (10문항)은 가능점수 범위 10점에서 50점으로 최하 10점, 최고 41점으로 평균 19.13점이고 표준화된 값은 1.91점이었다. 적대감 요인 (6문항)은 가능점수 범위 6점에서 30점으로 최하 6점, 최고 26점으로 평균 11.02점이고 표준화된 값은 3.19점이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불안이 가장 적었고 적대감이 가장 높았다.

3. 의사소통 유형

의사소통유형은 73문항으로 역기능 의사소통 문항 54문항과 일치 의사소통 문항 19문항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역기능 의사소통은 가능점수 범위 54점에서 270점으로 최하 68점, 최고 193점으로 평균은 149.55점이고 표준화된 값은 2.77점

이었다. 하부요인인 회유형 요인 (17문항)은 가능점수 범위 17점에서 85점으로 최하 29점, 최고 77점으로 평균 52.09점이었으며, 표준화된 값은 3.06점이었다. 비난형 요인 (13문항)은 가능점수 범위 13점에서 65점으로 최하 13점, 최고 57점으로 평균 34.96점이었고, 표준화된 값은 2.69점이었다. 초이성형 요인 (11문항)은 가능점수 범위 11점에서 55점으로 최하 13점, 최고 45점으로 평균 28.68점이고, 표준화된 값은 2.61점이었다. 산만형 요인 (13문항)은 가능점수 범위 13점에서 65점으로 최하 13점, 최고 54점으로 평균 34.04점이고, 표준화된 값은 2.62점이었다. 일치 의사소통 문항은 가능점수 범위 19점에서 95점으로 최하 44점, 최고 85점으로 평균 62.74점이었고, 각 문항별 평균은 3.30점이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의사소통은 역기능 의사소통 중 회유형이 가장 높고, 초이성형이 가장 낮았으며, 역기능 의사소통보다는 일치 의사소통을 더 높았다.

<표 7>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관련 요인 특성

(N=525)*

구 분	가 능 점 수 범 위	점 수 범 위	평 균 ± 표 준 편 차	요 인 / 문 항 수 평 균 ± 표 준 편 차
자아존중감	10 - 40	17 - 40	29.67 ± 3.90	2.97 ± .39
정신건강	29 - 145	29 - 122	58.70 ± 17.89	2.02 ± .62
우울	13 - 65	13 - 62	28.64 ± 9.17	2.20 ± .71
불안	10 - 50	10 - 41	19.13 ± 6.30	1.91 ± .63
적대감	6 - 30	6 - 26	11.02 ± 3.88	3.19 ± 1.05
역기능 의사소통	54 - 270	68 - 193	149.55 ± 14.46	2.77 ± .27
회유	17 - 85	29 - 77	52.09 ± 7.31	3.06 ± .43
비난	13 - 65	13 - 57	34.96 ± 6.16	2.69 ± .47
초이성	11 - 55	13 - 45	28.68 ± 4.44	2.61 ± .40
산만	13 - 65	13 - 54	34.04 ± 5.54	2.62 ± .43
일치적 의사소통	19 - 95	44 - 85	62.74 ± 6.80	3.30 ± .36

* 무응답 제외

D.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차이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성교제 특성, 성관련 경험 특성으로 분류하여 각 세부 특성에 따른 성적자기주장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성적자기주장은 과거 이성교제가 아닌 현재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 정도가 현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최근 성적자기주장정도만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비교 분석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최근 성적자기주장 정도의 차이

여대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나이, 학년, 전공계열, 종교, 주거형태, 한달용돈, 용돈출처에 따른 성적자기주장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성적자기주장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8> 여대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차이 (N=525)*

특성	구분	최근 성적자기주장 평균 ± 표준편차	F	P
나이	17세 - 19세	50.59 ± 7.87	1.198	.303
	20세 - 22세	49.63 ± 7.94		
	23세 - 29세	48.84 ± 7.57		
학년	1학년	50.17 ± 7.81	.438	.726
	2학년	50.88 ± 6.74		
	3학년	49.51 ± 7.46		
	4학년	49.59 ± 8.10		
전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49.74 ± 7.61	.816	.485
	이공계열	48.46 ± 8.08		
	의학·간호학계열	50.03 ± 7.54		
	예체능계열	49.76 ± 9.10		
종교	개신교	49.66 ± 7.80	.048	.996
	천주교	49.53 ± 8.10		
	불교	49.51 ± 8.70		
	기타	48.63 ± 8.38		
	없음	49.42 ± 7.59		
주거형태	가족과 거주	49.27 ± 7.84	.822	.534
	친척집에 거주	51.60 ± 11.40		
	하숙	48.78 ± 9.81		
	자취	49.97 ± 7.52		
	기숙사	50.38 ± 8.11		
한달용돈	30만원 이하	49.69 ± 8.06	.058	.944
	30~50만원	49.43 ± 7.76		
	50만원 이상	49.66 ± 7.20		
용돈출처	아르바이트	49.58 ± 8.54	.780	.459
	부모님	49.17 ± 7.97		
	둘다	50.16 ± 7.37		

* 무응답 제외

2. 이성교제 특성에 따른 최근 성적자기주장 정도의 차이

여대생의 이성교제 특성 중 이성교제 경험, 데이트 비용 지불, 이성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성적자기주장 정도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여대생의 이성교제 특성 중 이성교제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F=4.72, p=.003), scheffe method로 각 그룹간의 차이를 본 결과 이성교제 경험 1명군이 4명 이상의 군보다 성적자기주장 정도가 더 높았고 이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1).

그러나 데이트시 비용 지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동거 유무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정도는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17명으로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Z=-1.82, p=.068).

<표 9> 여대생의 이성교제 특성에 따른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차이

(N=525)

특성	구분	최근 성적자기주장 평균±표준편차	F or Z	P
이성교제 경험	1명	51.27±7.25 ^a	4.72	.003
	2명	48.90±8.07		
	3명	49.17±7.72		
	4명 이상	47.94±8.28 ^b		
데이트 비용지불	남>여	49.41±7.48	.15	.865
	남=여	49.49±8.41		
	여>남	50.62±9.02		
이성과 동거경험	없다	46.35±7.40	-1.82	.068
	있다	44.89±7.70		

a vs b (mean difference=3.33, p=.007)

3. 여대생의 성관련 경험 특성에 따른 최근 성적자기주장 정도의 차이

여대생의 성관련 경험 특성 중 자위 경험, 성교 경험, 첫 성교 나이, 성교 파트너 수, 성교 시 피임 정도, 피임 방법, 성병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 임신, 유산, 성폭력 피해 경험에 따른 성적자기주장 정도의 차이는 <표 10>과 같다.

여대생의 성관련 경험 특성 중 자위 경험의 유, 무에 따라서 성적자기주장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2.47$, $p=0.014$), 구체적으로 자위 경험의 빈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3$, $p=.793$).

성교 경험의 유, 무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성교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성적자기주장 정도가 더 높았다 ($t=7.96$, $p=.000$).

성교 시 피임의 빈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F=15.34$, $p=.000$), scheffe method로 각 그룹간의 차이를 본 결과, ‘항상 한다’는 군은 ‘전혀하지 않는다’는 군과 평균차이 7.51이 더 높았으며 ($p=.002$), ‘항상 한다’는 군은 ‘때때로 하는 군’ 과도 평균차이 6.77이 더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 그러나 ‘전혀 하지 않는다’는 군과 ‘때때로 한다’는 군 사이는 평균차이 .7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94$).

피임방법에 따라서도 콘돔을 사용하는 군이 주기체크를 사용하는 군에 비하여 성적자기주장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41$, $p=.018$).

성교 시 성병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0.64$, $p=.000$), scheffe method로 각 그룹간의 차이를 본 결과, ‘항상 한다’는 군은 ‘전혀하지 않는다’는 군에 비해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높았으며 ($p=.000$), ‘항상 한다’는 군은 ‘때때로 하는 군’ 과에 비해서도 성적자기주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p=.000$). 그러나 ‘전혀 하지 않는다’는 군과 ‘때때로 한다’는 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734$).

첫 성교 나이, 성교 파트너 수, 성폭력 피해 경험의 유무와 각 성폭력 피해 경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성적자기주장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임신과 유산경험이 있는 경우가 9명이어서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Z=-5.2$, $p=.603$).

<표 10> 여대생의 성관련 경험 특성에 따른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차이

(N=525)

특성	구분	최근성적자기주장 평균±표준편차	t or F or Z	p
자위경험	없다	50.07 ± 7.75	2.47	.014
	있다	48.10 ± 7.91		
	현재는 하지 않는다	47.80±8.44	.23	.793
	가끔 한다	48.41±7.62		
	자주 한다	46.00±7.79		
성교경험	없다	51.23±7.18	7.96	.000
	있다	45.36±8.04		
첫 성교 나이	16 - 19세	44.53±7.16	.42	.656
	20 - 21세	45.02±8.77		
	22 - 26세	46.41±7.09		
성교 파트너 수	1명	45.93±8.41	.32	.808
	2명	45.48±7.13		
	3명	44.82±7.22		
	4명 이상	43.40±8.02		
성교 시 피임	전혀 안한다.	41.40±7.08 ^a	15.34	.000
	때때로 한다	42.14±7.63 ^b		
	항상 한다	48.91±7.09 ^c		
피임방법	콘돔	47.35±7.89	2.41	.018
	주기체크	43.04±7.18		
성병예방 위한 콘돔사용	전혀 하지 않는다	41.77±7.98 ^d	20.64	.000
	때때로 한다	43.02±7.17 ^e		
	항상 한다	50.72±6.23 ^f		
임신 및 유산*	없음	45.62±7.70	-.52	.603
	있음	43.44±9.08		
성폭력 피해경험	없다	49.91±7.82	-1.15	.251
	있다	48.90±7.85		
	언어적 성희롱	49.02±8.03	.59	.554
	신체적 성추행	48.98±7.58	.39	.436
	강간	47.33±8.04	-.78	.434

a vs c (mean difference=7.51, p=.002)

b vs c (mean difference=6.77, p=.000)

d vs f (mean difference=8.96, p=.000)

e vs f (mean difference=7.71, p=.000)

E.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과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

1.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과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적자기주장과 관련요인의 관계는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 <표 11>과 성경험이 유, 무에 따른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들의 관계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최근 성적자기주장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090$, $p<0.5$), 정신건강의 하부요인인 불안 ($r=-.108$, $p<.05$), 적대감 ($r=-.113$, $p<.05$)과 그리고 역기능 의사소통의 유형 중 비난형 ($r=-.097$, $p<.05$), 산만형 ($r=-.128$, $p<.01$)이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하부요인인 거절요인은 정신건강의 하부요인인 적대감 ($r=-.119$, $p<.01$), 역기능 의사소통 ($r=-.090$, $p<.05$)과 그 하부요인 중에서 회유형 ($r=-.090$, $p<.05$), 산만형 ($r=-.181$, $p<.01$)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고, 일치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r=-.099$, $p<.01$). 예방요인은 정신건강의 하부요인인 불안 ($r=-.099$, $p<.05$), 역기능 의사소통 유형 중 회유형 ($r=-.111$, $p<.05$), 비난형 ($r=-.088$, $p<.05$)이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초 성적자기주장에서는 정신건강의 하부요인인 불안만이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다 ($r=-.149$, $p<.05$). 하부요인인 거절요인에 있어서는 정신건강 ($r=-.133$, $p<.05$)과 그 하부요인인 불안 ($r=-.160$, $p<.05$), 적대감 ($r=-.128$, $p<.05$), 역기능 의사소통 ($r=-.140$, $p<.05$)과 그 하부요인인 산만형 ($r=-.156$, $p<.05$)이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예방요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는 관련된 요인이 없었다.

또한, 제 변수들 간의 양측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 ($r=-.478$, $p<.01$), 역기능 의사소통 ($r=-.479$, $p<.01$), 및 일치적 의사소통 ($r=.492$,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신건강은 역기능 의사소통 ($r=.468$, $p<.01$)과 일치적 의사소통 ($r=-.273$,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11>.

즉 성적자기주장은 최초 이성교제 시와 최근 이성교제에서 따라 관련요인이 다르며, 최초의 자기주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신건강의 하부요인인 불안이 낮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높았다. 하부요인으로 거절은 정신건강이 높을수록, 역기능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거절을 잘하였다. 최근 자기주장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이 높았으며, 정신건강의 하부요인인 불안이 낮을수록, 적대감이 낮을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비난형이 낮을수록 산만형이 낮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을 잘하였다. 성적자기주장의 하부요인으로 보면, 거절은 정신건강의 하부요인 중 불안과 적대감이 낮을수록, 역기능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일치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거절을 잘하였고, 예방은 정신건강 중 불안이 낮고, 역기능 의사소통 중 회유형과 비난형이 낮을수록 임신 성병을 위한 예방행위를 잘하였다.

성교 경험이 없는 경우의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의 상관관계는 <표 12>와 같다. 최근 성적자기주장에서는 역기능 의사소통 중 산만형 ($r=-.132, p<.05$), 비난형 ($r=-.105, p<.05$), 최근 거절에서는 역기능 의사소통 ($r=-.157, p<.01$), 그 중 산만형 ($r=-.237, p<.01$)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초 성적자기주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이 없었고, 최초 거절에서 역기능 의사소통 중 산만형 ($r=-.186, p<.05$)이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초 예방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은 없었다.

즉, 성교 경험이 없는 경우 산만형과 비난형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최초 성적자기주장에서 거절을 잘하였고, 산만형은 최근 성적자기주장을 잘하는 것과 최근 거절에도 지속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의 상관관계는 <표 13>과 같다. 최근 성적자기주장은 일치 의사소통이 ($r=.172, p<.05$)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거절요인은 의사소통 유형 중 회유형 ($r=-.181, p<.05$)과 일치 의사소통 ($r=.199,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초 성적자기주장에서, 정신건강의 하부요인인 불안 ($r=-.227, p<.05$), 역기능 의사소통 중 회유형 ($r=-.240,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거절요인에서도 정신건강의 하부요인인 불안

($r=-.271$, $p<.05$), 역기능 의사소통 중 회유형 ($r=-.230$,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예방요인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인이 없었다.

여대생 중 성경험자는 성적자기주장이 최초와 최근이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 자기주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치 의사소통을 할수록 성적자기주장을 잘 하였고 회유형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일치 의사소통을 할수록 원치 않는 성적접촉에 대한 거절을 잘하였다. 최초 자기주장은 불안이 낮고, 회유형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을 잘하였다.

<표 11> 성적자기주장과 제 요인의 상관관계

(N=525)

	최근성적 자기주장	최근거절	최근예방	최초성적 자기주장	최초거절	최초예방	자아 존중감	정신건강	우울	불안	적대감	역기능 의사소통	회유	비난	초이성	산만	일치 의사소통
최근성적 자기주장	1.00																
최근거절	.847**																
최근예방	.877**	.488**															
최초성적 자기주장	.707**	.583**	.615**														
최초거절	.576**	.668**	.339**	.847**													
최초예방	.629**	.358**	.686**	.894**	.520**												
자아 존중감	.090*	.089*	.073	.069	.096	.016											
정신건강	-.086	-.088	-.066	-.109	-.133*	-.057	-.478**										
우울	-.076	-.079	-.055	-.071	-.096	-.025	-.510**	.952**									
불안	-.108*	-.108*	-.090*	-.149*	-.160*	-.100	-.381**	.922**	.793**								
적대감	-.113*	-.119**	-.079	-.107	-.128*	-.066	-.352**	.856**	.735**	.742**							
역기능 의사소통	-.068	-.127**	-.002	-.050	-.140*	.046	-.479**	.468**	.444**	.428**	.385**						
회유	.020	-.090*	.111*	-.010	-.078	.054	-.215**	.239**	.239**	.250**	.070	.595**					
비난	-.097*	-.078	-.088*	-.047	-.066	-.019	-.269**	.370**	.308**	.320**	.449**	.621**	-.098*				
초이성	.041	.048	.023	.051	.012	.075	-.131**	.064	.068	.031	.065	.512**	.053	.288**			
산만	-.128**	-.181**	-.055	-.083	-.156*	.007	-.539**	.443**	.434**	.403**	.380**	.740**	.288**	.435**	.109*		
일치 의사소통	.055	.099*	.006	.031	.076	-.025	.492**	-.273**	-.287**	-.260**	-.219**	-.262**	-.154**	-.046	.035	-.412**	1.00

** p< 0.01, * p< 0.05

<표 12> 미성경험자의 성적자기주장과 제 요인의 상관관계

(N=371)

	최근성적 자기주장	최근거절	최근예방	최초성적 자기주장	최초거절	최초예방	자아 존중감	정신건강	우울	불안	적대감	역기능 의사소통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 형	산만형	일치 의사소통
최근성적 자기주장	1.00																
최근거절	.849**																
최근예방	.873**	.483**															
최초성적 자기주장	.854**	.687**	.755**														
최초거절	.701**	.777**	.420**	.858**													
최초예방	.773**	.427**	.869**	.877**	.505**												
자아 존중감	.071	.102	.035	.077	.107	.029											
정신건강	-.054	-.068	-.033	-.012	-.032	.006	-.465**										
우울	-.034	-.047	-.019	.008	-.019	.025	-.483**	.953**									
불안	-.093	-.103	-.069	-.039	-.045	-.024	-.369**	.922**	.798**								
적대감	-.068	-.095	-.024	-.034	-.046	-.020	-.360**	.848**	.726**	.727**							
역기능 의사소통	-.089	-.157**	-.012	-.015	-.141	.114	-.483**	.459**	.429**	.425**	.379**						
회유	-.002	-.080	.060	.077	-.003	.138	-.209**	.282**	.277**	.292**	.098	.609**					
비난	-.105*	-.102	-.080	-.087	-.120	-.032	-.299**	.366**	.297**	.323**	.455**	.603**	-.081				
초이성	.019	.007	.022	.054	-.027	.115	-.177**	.084	.105	.054	.054	.533**	.054	.282**			
산만	-.132*	-.237**	-.009	-.084	-.186*	.043	-.542**	.401**	.376**	.365**	.366**	.753**	.336**	.408**	.157**		
일치 의사소통	.043	.083	-.007	.065	.066	.045	.449**	-.157**	-.168**	-.147**	-.137**	-.217**	-.098	-.043	.017	-.386**	1.00

** p< 0.01, * p< 0.05

<표 13> 성경험자의 성적자기주장과 제 요인의 상관관계

(N=145)

	최근성적 자기주장	최근거절	최근예방	최초성적 자기주장	최초거절	최초예방	자아 존중감	정신건강	우울	불안	적대감	역기능 의사소통	회유	비난	초이성	산만	일치 의사소통
최근성적 자기주장	1.00																
최근거절	.800**																
최근예방	.847**	.359**															
최초성적 자기주장	.401**	.318**	.316**														
최초거절	.362**	.480**	.138	.830**													
최초예방	.296**	.077	.359**	.888**	.480**												
자아 존중감	.147	.068	.162	.080	.083	.017											
정신건강	-.082	-.072	-.063	-.140	-.207	-.024	-.502**										
우울	-.091	-.087	-.061	-.086	-.142	.013	-.560**	.950**									
불안	-.077	-.068	-.066	-.227*	-.271*	-.112	-.406**	.920**	.779**								
적대감	-.122	-.101	-.099	-.093	-.182	.006	-.339**	.869**	.750**	.772**							
역기능 의사소통	-.043	-.086	.013	-.132	-.169	-.056	-.466**	.493**	.475**	.445**	.405**						
회유	-.010	-.181*	.151	-.240*	-.230*	-.180	-.223**	.175*	.183*	.194*	.052	.592**					
비난	-.009	.025	-.032	.087	.021	.115	-.220**	.374**	.324**	.310**	.419**	.678**	-.065				
초이성	.063	.111	-.002	.046	.062	.029	-.040	.020	-.009	-.010	.089	.473**	.076	.298**			
산만	-.113	-.075	-.111	-.079	-.129	-.008	-.544**	.530**	.543**	.484**	.406**	.715**	.223**	.487**	.010		
일치 의사소통	.172*	.199*	.108	.131	.151	.042	.579**	-.529**	-.531**	-.510**	-.419**	-.357**	-.215*	-.109	.060	-.482**	1.00

** p< 0.01, * p< 0.05

V. 논의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여대생들의 성적자기주장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여, 대학생을 위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 이성교제 경험 특성, 성격형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의사소통 유형이 성적 자기주장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성적자기주장과 관련을 맺었던 여러 변수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며, 특히 성격형과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먼저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최근 성적자기주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r=.090$, $p<0.5$). 이는 자아존중감이 자기주장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들(이선경, 2000; 임승규, 1999)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인 불안과 적대감이 최근 성적자기주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는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원치 않은 성관계 응낙동기가 높게 나오는 연구 결과(유외숙, 2004)를 한편으로 입증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불안 특성이 성적자기주장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상관 계수가 .090, 정신건강의 하부요인인 불안의 상관계수 -.108, 적대감 -.113으로 그 상관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자기주장과 개인의 내면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 상관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되는 정도가 미약하여 성적자기주장에는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 사실을 보여준다. 즉 성관련 경험 특성이 성적자기주장과 유의하게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고 이에 따라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변수인 의사소통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성관련 경험 특성과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성적자기주장 정도의 차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A. 성경험과 성적자기주장

성적자기주장의 정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성교 경험이 다. 본 연구 대상자의 28.1%만이 성교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최근에 진행된 여대생의 성 행동 관련 연구들(김향숙 2001; 유외숙, 2004; 장순복 등 1998; 한경순, 함미영, 2000)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여대생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성교제의 경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비해 조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성경험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성교 대상의 96.1%가 이성친구이고, 첫 성교 시의 평균 나이가 만 20세로, 성교를 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경우 대학 입학 후 최초로 하여 첫 성교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 문항 중 성과 관련된 고민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 대해, 성교 경험이 없는 여대생의 대부분이 이성친구의 성교 제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전 순결은 지켜야 하는지, 왜 남자들은 스킨십을 좋아할까 등 주로 성접촉에 대한 내용의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전체 응답자 중 55.5%가 성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기 때문, 27.6%가 어디서 상담해야 할지 몰라서 라고 응답하는 것을 볼 때, 추후 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여대생들에게 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성과의 성교에서 성교 시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11.3%에 달하였고, 피임방법에 있어서 주기체크만을 피임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20.2%에 달하는 것은 성경험을 한 여대생들이 임신과 성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임신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9회이었으며, 임신을 한 경우 모두 유산을 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미혼의 대학생의 경우 임신 후 유산이라는 결정을 하고 20대 초기에 조기유산을 하는 것은, 여성의 성건강 증진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여성의 성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성교제 중 성접촉 상황에서 원치 않은 성접촉에 대한 거절 능력

과 임신과 성병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성적자기주장은 여대생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성교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의 정도는 60점 만점에서 최초 성적자기주장의 경우는 평균 45.65점,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경우에는 평균 44.78점이었다. Patricia 등 (1997)이 도구를 개발할 당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거절요인의 평균 16.52점과 임신과 성병 예방 요인의 평균 21.63점이었다. 이 둘의 합한 평균값 38.15점을 비교해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적자기주장 정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여대생들이 미국의 여대생들과 비교하여 성적자기주장을 더 잘 한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편의 추출되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초의 이성교제 시와 최근의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 정도의 비교를 볼 때, 성교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 중에서 성적자기주장의 한 요인인 거절요인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이선경 (2000)의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바 있는, 성접촉이 진행될수록 성적자기주장의 점수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미 성교를 경험한 여대생들이 원치 않은 성적접촉에 대해 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대생들에게 성교경험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신의 성욕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성교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은 35.2%가 이성과의 신체접촉으로 해소하며, 25.5%가 성교를 통해 해소한다고 하였으며, 34.5%는 성욕 해소를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를 볼 때, 성교의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이 성교를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성교보다 본인이 원치 않은 성교를 더 많이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거절을 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대생들이 원치 않은 성교에 대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유외숙 (2004)은 여대생의 경우 거절의 두려움이 행동으로 전환되어 친밀한 관계의 해체를 예방하려는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대생에게 성교는 자신의 성욕구 충족이라는 감각적인 욕구 만족 보

다는 관계적 욕구 만족을 위한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성교제 초기와 후기의 성적자기주장의 예방요인에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원치 않은 성접촉에 대한 거절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이나 성병 예방을 위한 예방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방요인에서 초기와 후기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초기의 이성교제의 예방능력의 정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거절은 점점 못하게 되는데 반해 예방의 능력이 변화 없이 동일하다면, 이성과의 성교 경험이 늘어날수록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이나 성병 감염의 기회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교육은 이성교제 유무와 상관없이, 성교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자기주장에서 거절하는 능력 못지않게 임신과 성병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다.

한편, 성병과 임신에 대한 예방 행위로 콘돔 사용 정도에 대한 것은 성적자기주장의 예방요인의 질문이었다. 한국 여대생의 성교 경험 특성 상 신뢰관계가 있고 친밀한 관계라고 서로 확신하는 이성친구와 주로 성교를 하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이 성병에 대한 걱정보다는 임신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 관련된 고민을 봤을 때 주로 임신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었고, 성병에 대한 경험은 없었으며, 고민을 적은 학생도 없었다. 즉, 여대생의 경우 성병에 대한 예방을 고려하기 보다는 임신에 대한 예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병과 임신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콘돔 사용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콘돔 사용율이 높지 않은 것은, 콘돔 사용에 대한 것은 여성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성교의 상대가 되는 이성친구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강희선, 2001), 한국의 남성들이 성교 시 콘돔사용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콘돔 사용을 제안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여성 스스로가 콘돔사용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혼전 성경험에 대한 사회문화적 허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맞추어 여성의 성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에는 거절하는 방법에 대

한 강조가 필요함과 동시에, 여성 개인의 차원에만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파트너, 동료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B. 의사소통과 성적자기주장

의사소통은 성적자기주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성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볼 때, 성적자기주장과 의사소통의 상관계수가 .15이하로 그 상관관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성적인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화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험이 있는 여대와 성경험이 없는 여대의 의사소통과 성적자기주장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기능 의사소통의 여러 유형과 성적자기주장의 하부 요인들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성경험이 없는 여대의 경우 최근 성적자기주장은 산만형 의사소통과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성적자기주장의 거절요인과 산만형 의사소통이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만형 의사소통은 성적자기주장의 최초 거절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만형 의사소통을 보일 경우 성교 경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험이 없는 여대생이 산만형 의사소통을 보일 경우, 성적 접촉 상황에서 거절을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 주제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산만형 의사소통 유형을 보이는 이들의 생존방법인데, 이를 성적상황으로 대입해 보았을 때 이들 유형은 원치 않은 성적 접촉 요구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단지 상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결국 원치 않은 성적접촉에 응하게 되어 의도와 다른 정반대의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산만형 의사소통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모습

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상순, 1998). 그래서 role play와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가상적인 상황에 노출시켜 그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여 자신이 산만한 의사소통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만형 의사소통을 보이는 여대생을 위해서는 성적자기주장 훈련에 role play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 노출시켜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반면, 성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경우는 역기능 의사소통 중 회유형 의사소통이 최초 성적자기주장과 역상관계가 있었으며, 일치 의사소통도 최근 성적자기주장과 최근 거절요인에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성교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경우 일치형 의사소통이 최근 성적자기주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인 것은, 최근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의 거절요인에서 일치형 의사소통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원치 않은 성접촉에 대해 거절하는 능력은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험이 있는 군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성병과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콘돔 사용에 대한 것이 일치 의사소통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의사소통 훈련만으로는 콘돔 사용을 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논의된 콘돔 사용에 대한 여대생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파트너의 태도가 콘돔 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역기능 의사소통 중에서 회유형이 최초 성적자기주장의 거절요인과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거절요인에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성교 경험이 있는 여대생 중 회유형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성적자기주장을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회유형 의사소통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추려고 남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에 동의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성적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타인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성교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유형 의사소통을 보이는 여대생들에게 필요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에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가치를 깨닫는

감정을 갖는 경험을 주는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나 전달법’ 과 같은 일반적인 자기주장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성적자기주장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성적자기주장 증진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서도 제안해 보았다. 물론, 성적자기주장과 의사소통의 상관관계 정도가 미약하여 의사소통 훈련이 성적자기주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지만,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방법을 통한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 개발에 의사소통 유형은 유용하고 적절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성적자기주장은 성교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 최초의 이성교제에 비해 최근의 이성교제 시 거절능력이 떨어지며, 성적자기주장의 증진을 위해서 일치형 의사소통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역기능 의사소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된 성적자기주장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치 않은 성접촉에 대하여 거절하는 방법과 그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도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성병과 임신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 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적자기주장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정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관련 경험 특성,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우울, 불안, 적대감), 의사소통 유형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2004년 12월 14일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525명을 편의 추출하여, 강의시간 전이나 후에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과 이성교제 경험 특성, 성관련 경험 특성에 대한 질문과 Patricia 등 (1997)이 개발한 성적자기주장측정 도구 (SAS)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Rosenberg, 1965), 정신건강 도구 SCL-90-R (Derogatis et al., 1974)의 문항 중 우울, 불안, 적대감 문항, 의사소통 유형(이상순, 1998)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ANOVA,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대생 중 성교경험이 있는 자는 145명 (28.1%)이고, 첫 성교 시 평균 나이는 20.39세 이었다. 첫 성교 대상자는 대부분이 이성친구 (96.1%)이며, 성교 시 피임을 항상하는 경우는 47.9%, 피임방법으로는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254명 (49.8%)이 성욕구를 느끼지 못하였고, 성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하지 못한 이유는 성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여가 246명 (55.5%)이었다.
2.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정도는 최초 이성교제 시 거절요인의 평균은 24.61 ± 4.30 점, 예방 요인의 평균은 24.81 ± 5.07 점이고, 이 두 요인은 합한 최초

성적자기주장의 평균은 49.36 ± 8.18 점 이었다. 최근의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 정도는 거절 요인의 평균은 24.40 ± 4.34 점, 예방 요인의 평균은 25.10 ± 4.80 점 이고, 최근 성적자기주장의 평균은 49.51 ± 7.88 점 이었다.

3. 성적 자기주장의 관련요인 중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9.67 ± 3.90 점, 정신건강의 평균은 58.70 ± 17.89 점으로 적대감이 가장 높고 (3.19 ± 1.05), 불안이 가장 낮았으며 ($1.91 \pm .63$), 역기능 의사소통의 평균은 149.55 ± 14.46 점으로 초이성형이 가장 높고 ($2.61 \pm .40$), 회유형이 가장 낮았으며 ($3.06 \pm .43$), 이보다 일치 의사소통의 평균은 62.74 ± 6.80 점으로 의사소통 유형 중 가장 높았다.
4. 최근 성적자기주장 정도는 이성교제 대상자 수 ($F=4.72, p=.003$), 자위경험 ($t=2.47, p=.014$), 성교경험 ($t=7.96, p=.000$), 성교 시 피임 사용정도 ($F=15.34, p=.000$), 피임방법 ($t=2.41, p=.018$), 성병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 정도 ($F=20.64, p=.000$)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 성적자기주장의 거절요인에 최초와 최근의 이성교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036, p=.017$).
6. 여대생의 최초 자기주장에서는 불안 ($r=-.149,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최초 자기주장의 하부요인인 거절요인에서는 정신건강 ($r=-.133, p<.05$), 불안 ($r=-.160, p<.05$), 적대감 ($r=-.128, p<.05$), 역기능 의사소통 ($r=-.140, p<.05$), 산만형 ($r=-.156,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근 자기주장에서는 자아존중감 ($r=.090, p<.05$), 불안 ($r=-.108, p<.05$), 적대감 ($r=-.113, p<.05$), 비난형 ($r=-.097, p<.05$), 산만형 ($r=-.128, p<.01$)이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최근 자기주장의 하부요인인 거절요인은 적대감 ($r=-.119, p<.01$), 역기능 의사소통 ($r=-.090, p<.05$), 회유형 ($r=-.090, p<.05$), 산만형 ($r=-.181, p<.01$), 일치 의사소통 ($r=.099, p<.01$)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예방요인은 불안 ($r=-.090, p<.05$), 회유형 ($r=-.111, p<.05$), 비난형 ($r=-.088,$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7. 성교 경험이 없는 여대생의 경우 최초 성적자기주장의 거절요인에서 산만형 ($r=-.186$, $p<.05$), 비난형 ($r=-.105$,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최근 성적자기주장에서는 산만형 ($r=-.132$,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최초 거절에서는 역기능 의사소통이 ($r=-.157$, $p<.01$)과 산만형 ($r=-.237$, $p<.01$)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8. 성교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경우 최초 성적자기주장에서, 불안 ($r=-.227$, $p<.05$), 회유형 ($r=-.240$,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거절요인에서는 불안 ($r=-.271$, $p<.05$), 회유형 ($r=-.230$,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근 성적자기주장은 일치적 의사소통 ($r=.172$,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부요인 중 거절요인은 회유형 ($r=-.181$, $p<.05$), 일치 의사소통 ($r=.199$, $p<.05$)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성적자기주장은 성교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 최초에 비해 최근의 이성교제 시 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성적자기주장에 일치형 의사소통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대생의 이성교제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일치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성적자기주장 증진 훈련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성교 경험을 고려하여 원치 않은 성접촉에 대해 거절하는 방법과 성병과 임신예방을 위한 콘돔사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추후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한국 실정에 맞는 성적자기주장 도구 개발이 이루어져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의 정도를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3. 여대생의 이성교제 시 성적자기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현숙 (1989).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경험의 관계연구. *최신의학*, 32(2), 120-125.
- 강희선 (2001). *한국 대학생의 콘돔 사용 설명 모형*.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권미경, 김남선, 김혜원 (1998). *대학생의 건강관리*. 서울: 현문사.
- 권성민, 이철구, 이현림 (2003). 자기표출훈련과 자기주장훈련이 불안신경증 환자의 불안수준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5(1), 17-33.
- 김계현 (1995). *거꾸로 배우는 사랑과 결혼*. 서울: 김영사.
- 김귀분, 오혜경 (2000). 여대생의 성인식. *동서간호학연구지*, 5(1), 19-35.
- 김금운, 윤가현 (2004). 대학생들의 연애관계에서 결별을 예측하는 관계적 요인. *인간발달연구*, 11(1), 103-128.
- 김미중, 강희선 (2003). 기혼 여성의 지속적 피임행위와 의사소통, 피임통제감 및 성적 자율성. *대한간호학회지*, 33(6), 784-791.
- 김윤희, 이광자, 유숙자, 이소우, 김소야자 외(2001). *정신간호총론-제 4판*. 서울: 수문사.
- 김재환, 김광일 (1984). SCL-90-R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Ⅲ. *정신건강연구*, 2, 278-311.
- 김정은 (1999). 대학생들의 성교육 경험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5(2), 232-249.
- 김주연 (1993).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김주연 (2002). *대학생의 애착 유형에 따른 사회적지지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 김향숙 (2001). *대학생의 애착, 사랑유형에 따른 성행동*.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 김현경 (2002). *프로젝트로서의 '연애'와 여성 주체성에 관한 연구 -여자 대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남명희 (1999).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1), 239-251.
- 민성길 (2001).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박분희 (1998). *자기주장훈련이 자기존중행동과 불안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전북.
- 송성자 (1985). 송전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조사연구. *송전대학교 학생지도연구*, 29 (1), 107-114.
- 송인섭 (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법문사.
- 양동철 (1983). *여고생의 불안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전남.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 피해간의 매개요인에 관한 연구: 데이트 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유외숙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 -대학생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 윤가현 (1990). *성의 심리학*. 서울: 성원사.
- 이복동 (2001).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이상순 (1998). *심리경향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이선경 (2000). *이성교제하는 십대 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자기 주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숙경 (1993). *미혼 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승열 (1999). *자기주장훈련이 고교생의 우울수준과 자살관념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경남.
- 이영휘,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1997). *대학생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 인천시 일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7(1), 26-35.

- 이은숙, 선광순 (1998). 여대생의 여성건강에 관한 지식 수준 및 교육요구. *간호과학논집*, 3(1), 15-27.
- 이인숙 (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 이혜숙 (2002). 일부 여대생의 성 실태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131-144.
- 이효용 (2004년 12월 8일). 20~30대 미혼 여성 500명 성의식 조사. *서울신문*.
- 이희선 (1995). *정상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간의 자아분화 및 정신건강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구.
- 임능민 (1973). *현대 심리학 총서*. 법문사, 서울.
- 임승규 (1999). *소아당뇨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자기주장훈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2000). *10대 여성 임신실태 및 예방대책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 장순복, 이선경, 김영란 (2003). 여고생의 성적자기주장 프로그램 참여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3(5), 659-667.
- 장순복, 이양재, 박순정, 송은일, 서정애, 오윤경 (1998). *대학생의 성행태 조사연구*. 한국 성문화 연구소/대한가족계획협회부설.
- 정동철 (1978). 성: 사회적 문제. *대한 불임학회지*. 5(1), 33-36.
- 정선자 (1981). *일부여자대학생들의 정신건강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최경희 (1990). *자기주장훈련이 불안감소의 지속효과에 미치는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전남.
- 최명숙, 하나선 (200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4), 318-330.
- 최정아 (1996).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한경순, 함미영 (2000).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115-131.
-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33호 (2000) ~ 46호 (2003).
- 홍경자 (1981). 한국대학생에 있어서 주장훈련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3, 97-116.
- 홍경자, 노안녕 (1994). 불안관리를 위한 집단훈련의 효과. *학생생활연구*, 15, 79-90
- Augell, A. R. (1974). Change in self-reported anxiety during a small group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202-205.
- Argyle, M. (1972). Self-image and Self-esteem. *The Psychology of International Behavior*. England: Harmond Sworth, 42-53.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Jersey: Prentice-Hall.
- Blumstein, P., & Schwartz, P. (1983). *American couple*. William Morrow and Company, New York.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2, Basic Books. New york.
- Byers, E. S. & Lewis, K. (1988). Dating couples' disagreements over the desired level of sexual intimacy. *Journal of Sex Research*, 24, 15-29.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Derogatis, L. R., Lipman, R. E., Rickels, K., Uhlenhuth, E. H., & Covi, L. (1974). The Hopkins Symptom Checklist (HSCL): A Self-Report Symptom Inventory. *Behavioral Science*. 19, 1-15.
- Evans, D. R. (1970). Specific aggression, arousal, and reciprocal inhibition therapy. *Western Psychologists*, 1, 125-130.
- Evans, D. R., & Strangerland, M. (1971). Development of the reaction inventory to measure anger. *Psychological Reports*. 19, 412-414.

- Fensterheim, H., & Bear, J. (1975). *Don't say yes when you want to say no*. Dell Publishing Co. New York.
- Fritchie, R. & Melling, M. (1991). *The Business of assertiveness* (최일성 역). 열린 세상, 서울.
- Green, J., & Tones, K. (2000). Sex and the World. *Sexual Health and foundations for Practice*, Bailliere Tindall, 28-30.
- Harlow, L. L., Quinam K., Morokoff, P. J., Rose, J. S., & Grimley, D. M. (1993). HIV risk in women: A multifaceted model.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1*, 3-38.
- Harlow, L. L., Rose, J. S., Morokoff, P. J., Quinam K., Mayer, K. J., Mitchell, K., & Schnoll, R. (1998). Women HIV sexual risk takers: Related behaviors interpersonal issues, and attitudes. *Women's Health: Research on Gender , behavior, and Policy, 4*(4), 407-237.
- Herson, M. & Bellack, A. S. (1976). Social skills training for chronic psychiatric patients: rationale, research finding and future direction. *Comprehensive Psychiatry, 17*(4), 559-580.
- Hurlbert, D. F. (1991). The role of assertiveness in female sexualit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exually assertive and sexually nonassertive women. *Journal Sex Marital Therapy, 17*(3), 183-190.
- Kincaid, M, B.(1978). Assertiveness training from the participants' perspective. *Professional Psychology, 2*, 153-160.
- Krahe', B., Scheiberger-Olwig, R., & Koplín, S. (2000). Ambiguous communication of sexual intentions as a risk marker of sexual aggression. *Sex Roles, 42*, 313-337.
- Meleshko, K. G. A., & Alden, L. E. (1993). Anxiety and self-disclosure: Toward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1000-1009.
- Muehlenhard, C. L., & Hollabaugh, L. C. (1988). Do women sometimes say no

- when they mean yes?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women's token resistance to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72-879.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5). The Sexual Assertiveness Questionnaire: A questionnaire for measuring women's ability to refuse unwanted sexual advances J. Unpublished raw data.
- Myers, I. B. & McCaully, M. H. (1986).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 O'Sullivan, L. F., & Byers, E. S. (1996) Gender differences in responses to discrepancies in desired level of sexual intimacy.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8, 49-67.
- Patricia, J.M., Kathryn, Q., Lisa, L.H., Laura, W., Diane, M.G., Pamela, R.G., & Gary, J.B.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Quina, K., Harlow, L. L., Morokoff, P. J., & Saxon, S. E. (1997). Interpersonal power and women's HIV risk. In J. Manlowe & N. Goldstein (Eds.).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V* (188-206).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Rimm, D. C., Hill, G. A., Brown, N. N., & Stuart, J. E. (1974). Group assertive training in treatment of expression of in appropriate anger. *Psychological Reports*, 34, 791-79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Yew York.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Basic Books. New York.
- Satir, V. (1972). *People-making*. Palo Alto :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atir, V.(1983).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hotland, R. L., & Hunter, B. A. (1995). Women's token resistant and compliant

- sexual behaviors are related to uncertain sexual intentions and rap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26-236.
- Staub, E. (1971). The learning and unlearning of aggression. *The Control of aggression and violence*. New York: Academic Press, 93-124.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W. W. Horton. New York.
- Vaughn, I. R., Rupal, S., & Constance, M. W. (2002). Is lack of Sexual Assertiveness Among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 a Cause For Concer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4), 178-183.
- WHO. (1995). Teaching Modules for Basic Education in Human Sexuality, HIV/AIDS reference library for nurse.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manila*, (7), 10.

<부록 1>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질문지

성적자기주장 질문지

오늘날 우리는 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남녀 차이 때문이거나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과 인간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의 질문은 여러분의 성적자기주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여쭙보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협조해주시면,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의 내용은 연구 목적 외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혹시 성상당이나 문의, 또는 정보를 원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최명현 올림.
(e-mail: sexconsult@daum.net, 016-281-7720)

I. 다음의 자존감 문항에 대하여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 느낀다.	1	2	3	4
2. 나는 내가 좋은 장점(자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1	2	3	4
5. 나는 남들에게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	1	2	3	4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7.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2	3	4
9. 대체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10.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II.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아래의 기분들을 경험하셨다면, 그 해당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세요.

문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1	2	3	4	5
2. 성욕이 감퇴되었다.	1	2	3	4	5
3.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1	2	3	4	5
4.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1	2	3	4	5
5.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긴장되어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1	2	3	4	5
7. 울기를 잘한다.	1	2	3	4	5
8. 어떤 환경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1	2	3	4	5
9.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1	2	3	4	5
10. 자신도 견줄 수 없이 율화가 터진다(화가 난다)	1	2	3	4	5
11. 자책을 잘한다.	1	2	3	4	5
12. 외롭다	1	2	3	4	5
13. 기분이 울적하다	1	2	3	4	5
14. 매사에 걱정이 많다.	1	2	3	4	5
15.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	2	3	4	5
16.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1	2	3	4	5
17. 장래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18. 긴장이 된다.	1	2	3	4	5
19. 누구를 때리거나 헐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	2	3	4	5
20. 두려운 느낌이 든다.	1	2	3	4	5
21.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	2	3	4	5
22. 매사가 힘들다	1	2	3	4	5
23. 공포에 휩싸일 때가 많다	1	2	3	4	5
24. 사소한 일에도 잘 다룬다.	1	2	3	4	5
25.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1	2	3	4	5
26. 허무한 느낌이 든다.	1	2	3	4	5
27. 낮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28.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1	2	3	4	5
29. 무슨 일이든 조금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1	2	3	4	5

III. 다음은 자신의 평소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했는지(또는 하고 있는지)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며 나를 걱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2.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1	2	3	4	5
3.	나는 비교적 나와 대화하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편이다.	1	2	3	4	5
4.	무뚝뚝하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1	2	3	4	5
5.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해야 할 때, 비난하지 않고 그의 행동을 평가한다.	1	2	3	4	5
6.	친구의 주장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맞장구를 쳐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어디에서건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5
8.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정한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1	2	3	4	5
9.	상대방의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 못하며 정확한 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0.	남 못지않게 나도 유능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12.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의 실수나 결점을 잘 찾아내는 편이다.	1	2	3	4	5
13.	의견이 불일치되는 상황에 잘 대처하는 편이다.	1	2	3	4	5
14.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편이다.	1	2	3	4	5
15.	학교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 혹은 지시하며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6.	논쟁을 할 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17.	타인과 대화할 때 별 어려움이 없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편이다.	1	2	3	4	5
18.	나는 지나치게 겸손한 경향이 있다.	1	2	3	4	5
19.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1	2	3	4	5
20.	나는 나에게 만족하고 자신감이 있고 나에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1.	화가 났을 때, 화나게 한 사람에게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감정을 삭히는 편이다.	1	2	3	4	5
22.	나는 남에게 충고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다.	1	2	3	4	5
23.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나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책, 신문, 사전 등)를 인용하여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25.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사리에 맞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	1	2	3	4	5
26.	나 또는 타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7.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8.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될 때 그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1	2	3	4	5
29.	타인에게 화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기분이 나빠도 나쁘지 않은 척 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30.	타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한 후 그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31.	생각이 자주 바뀌고 토론하는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32.	타인이 나를 칭찬하면 잘 믿고 받아들이는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항상 친구, 가족, 친지들에게 잘 대해 주어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34.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나의 말을 이해 못해도 상관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35.	일관성 없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6.	나의 의사는 분명하게 밝히며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자신있게 말한다.	1	2	3	4	5
37.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사과하는 편이다.	1	2	3	4	5
38.	솔직하지 못하고 무책임하며 거짓말을 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39.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하지 않는다.	1	2	3	4	5
40.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1.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42.	미리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3.	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1	2	3	4	5
44.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1	2	3	4	5
45.	싸운 후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46.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나 따뜻한 태도를 잘 표현하는 편이다.	1	2	3	4	5
47.	때로는 나 스스로가 가치 없게 여겨진다.	1	2	3	4	5
48.	나는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9.	지나치게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경향이 있다.	1	2	3	4	5
50.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51.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나의 책임으로 돌린다.	1	2	3	4	5
52.	모든 것을 아는 체하며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며, 현명하고 침착한 것처럼 보이려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53.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힘들지 않다.	1	2	3	4	5
54.	거절하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이다.	1	2	3	4	5
55.	윗사람이 꾸중을 하면 화가 나서 일일이 말대꾸한다.	1	2	3	4	5
56.	우울함,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1	2	3	4	5
57.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화낼까봐 염려된다.	1	2	3	4	5
58.	타인이 나에게 충고하려 하면 나도 상대의 결점을 반박하거나 공격한다.	1	2	3	4	5
59.	다른 사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며 그들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다.	1	2	3	4	5
60.	다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어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61.	할 수 없는 일을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1	2	3	4	5
62.	화가 나도 무조건 참는다.	1	2	3	4	5
63.	친구와 언쟁을 해서 모욕을 당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풀려준다.	1	2	3	4	5
64.	나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는 자제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1	2	3	4	5
65.	나 스스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느낀다.	1	2	3	4	5
66.	나의 목소리는 애조를 띠며(슬픈 느낌을 주며), 때로는 부드럽고 작다.	1	2	3	4	5
67.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는 때가 있다.	1	2	3	4	5
68.	누구에게도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1	2	3	4	5
69.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1	2	3	4	5
70.	정직하게 '예' 혹은 '아니오'라고 말한다.	1	2	3	4	5
71.	나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긴장되어 있으며 날카롭고 큰 편이다.	1	2	3	4	5
72.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나 따뜻한 태도를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5
73.	까다로운 일을 결정하기를 귀찮아한다.	1	2	3	4	5

IV. 다음은 이성과의 성 접촉 시 반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최초의 이성교제 시와 가장 최근, 또는 현재의 이성교제시의 행동과 유사한 것에 표시하여 주세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가상의 상황에서 대처할 방식들에 표시하여 주세요. (만약, 최초가 현재라면, 가장 최근에만 check)

최초의 이성	문	항	최근의 이성
1 2 3 4 5	나를 애무해달라고 파트너에게 표현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원하는 부위에 애무해주길 기다린다(기다릴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성기를 애무해달라고 파트너에게 표현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파트너가 성기를 애무해주길 기다린다(기다릴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성교를 원하면 파트너에게 표현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여성이 애무를 요구하기 보다는 남자가 해주길 기다려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no”라고 말했더라도 파트너가 강요하면 나는 키스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파트너가 가슴을 만지려 할 때에 내가 싫으면 거절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파트너가 성기를 만지려 할 때에 내가 싫으면 거절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싫더라도 파트너의 요구에 따라 애무해준다(줄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싫더라도 파트너가 원하면 성교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파트너가 요구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성교를 거절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나와 파트너가 성교를 원하면 콘돔 없이 성교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성교 할 때 콘돔을 사용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성교하기 싫어도 파트너가 요구하면 콘돔없이 성교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콘돔을 사용하고 싶어도 파트너가 콘돔을 싫어하면 그냥 성교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파트너가 콘돔을 싫어해도 내가 원하면 콘돔을 사용한다(할 것이다).		1 2 3 4 5
1 2 3 4 5	파트너가 콘돔사용을 거절하면 나는 성교 안한다(안할 것이다).		1 2 3 4 5

위 상황은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답한 것입니까?

실제 파트너

가상의 상황

V.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거나 간략히 기록하여 주세요.

성별	여	남	군복무 여부	군복무필, ROTC, 미필, 면제
연령	만____세	____학년	이성과 동거경험	있음(기혼 포함), 없음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한달 용돈	30만원 이하, 30-50만원, 50만원 이상
용돈출처	아르바이트, 부모님, 둘 다		데이트 비용지불	남 > 여, 남 = 여, 여 > 남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신학계열, 의학·간호학계열, 예체능계열, 기타()			
주거형태	가족과 거주, 친척집에 거주, 하숙, 자취, 기숙사, 파트너와 동거, 기타()			

- 지금까지 이성교제 경험은 어떠합니까? 없다 있으면 1명 2명 3명 4명 이상
- 성충동이 일어날 경우 성적욕구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우선순위 별 번호표시 - 2순위 까지만)
이성과 성교 자위행위 이성과 애무나 접촉 취미생활에 몰두 운동, 다른 활동
의지로 참음 종교 활동 별로 충동을 느끼지 못함 기타 _____
- 자위행위 경험은 어떠합니까? 없다 현재는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 성교 경험은 어떠합니까? 없다 있다
☞있다면 (____명의 파트너, 첫 성교 시 나이 ____세, 이성친구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 성교 시 피임을 합니까? 해당사항 없다 전혀 하지 않는다 때때로 한다 항상 한다
☞한다면 주로 사용하는 예방 방법은 무엇입니까? 콘돔 자연주기 피임약 응급피임약
- 성교 시 성병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합니까?
해당사항 없다 전혀 하지 않는다 때때로 한다 항상 한다
- 성폭력의 피해경험이 있습니까?(중복체크가능) 없다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추행 강간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중복체크가능) 모르는 사람 선후배 안면 있는 사람 교사 가족·친척
- 다음의 경험이 남(상대방)에게 있었으면 횟수를 기입해주시시오.

임 신	없다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이상 <input type="checkbox"/>
유 산	없다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이상 <input type="checkbox"/>
성병감염	없다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이상 <input type="checkbox"/>
사창가출입	없다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이상 <input type="checkbox"/>
- 성문제 있을 때 상담을 하지 않은(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별 번호표시 - 2순위 까지만)
 어디에서 상담을 해야 할지 몰라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성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이 왠지 불편해서 나의 잘못을 비난받을 것 같아서
 내 문제를 외면하고 싶어서 상담을 할 만큼 큰 고민이 아니라 생각되어
 성문제 인식 못함
- 성과 관련된 본인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Choi, Myung Hy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sexual experience, self-esteem, mental health (depression, anxiety, hostility), and communication patterns (placating, blaming, super-reasonable, irrelevant, congruent stance) on sexual assertiveness(SA)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523 women college students in a metropolitan area in Korea participated in this cross-sectional survey. A Convenience sampling technique was used and data were collected by self report questionnaires from October 25th to December 14th, 2004.

The tools used in the study were a questionnaire on SA (Patricia, et al., 1997), self-esteem (Rosenberg, 1965), Symptom check list (SCL90-R) (Derogatis, et al, 1974) and Communication patterns (Lee, 1998).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t-test, ANOVA, with Scheffe method and Spearman correlations stat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Of the 28.1% of women who had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only 47.9%

were using contraception methods consistently, with condoms used most often (63.7%).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A was found according to number of boyfriends ($F=4.72$, $p=.00$), masturbation ($t=2.47$, $p=.14$),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t=7.96$, $p=.00$), contraception method ($t=2.41$, $p=.02$), and frequency of condom use ($F=20.64$, $p=.00$). Among women who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there we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fusal factor of SA in the first dating relationship & the most recent dating relationship ($t=.04$, $p=.02$).

Among women who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SA in the first dating relationship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xiety ($r=-.23$, $p<.05$), and placating communication patterns ($r=-.24$, $p<.05$). The SA refusal factor in participants first dating relationship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xiety ($r=-.27$, $p<.05$), and placating communication patterns ($r=.23$, $p<.05$). SA in the most recent dating relation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ngruent communication pattern ($r=.17$, $p<.05$). The SA refusal factor in participants the most recent dating relationship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lacating communication patterns ($r=-.18$, $p<.05$)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ngruent communication patterns ($r=.20$, $p<.05$).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for sex education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to be relevant and effective, identifying and improving communication patterns in relation to sexual assertiveness is important. A sexual assertiveness program is the one of the best ways to prevent unwanted sexual contacts, pregnancy,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Women college students, sexual assertiveness, self-esteem, mental health, communication patterns